차 례

읽기교재

1.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가사)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

비와도 눈와도 먼길 떠나도
손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준 그 품을 내 어이 잊으랴

기쁘나 힘드나 부르고싶은
정답고 미더운 나의 어머니
그 은혜 못 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

읽기교재

2. 꼬마보초병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나무가지우에 소복이 쌓였던 흰눈이 뽀얀 안개처럼 흩날렸다.

협동농장마을이 멀리 등뒤로 보이는 밭쪽에서 한패의 아이들이 불쑥불쑥 나타나 이쪽으로 씩씩하게 걸어오고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어깨에 막대기같은것들을 메였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나무로 깎은 총들이였다.

아이들은 한길이나 되는 언덕을 씽씽 내리였다. 그러나 아직 언덕우에는 일곱살쯤 나보이는 꼬마소년 하나가 언덕을 내리뛰지 못해 앉았다일어섰다하며 애쓰고있었다.

대장아이가 한달음에 달려가 언덕우에 서있는 꼬마소년에게 손을 척 내밀었다.

《괜히 이제 한번만 더 뒤떨어졌단 봐라. 그땐 집으로 아주 쫓아버리겠다.》

《응, 이젠 뒤떨어지지 않을래.》

꼬마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야무진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대오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과수원으로 뻗은 좁은 오솔길에 접어들었다.

《자, 여기서 군사놀이를 하자!》

대장아이는 손을 들어 등성이를 가리켰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자신있게 명령을 주고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영철아, 넌 오솔길에 가서 보초를 서라. 전투가 승리로 끝날때까지 누구도 통과시키지 말라!》

《싫어. 난 싫어.…》

꼬마소년이 도리머리를 흔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명령이다!》

대장아이는 위엄있게 소리쳤다.

《그래도 난 싫어. 누가 시시하게 보초나 선다든?》

꼬마소년 영철이는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하였다.

《영철아, 이건 장난이 아니고 명령이야!》

이 말에 영철은 울음을 뚝 그쳤다.

얼른 눈물을 훔치고나니 울던 기색은 꼬물도 없이 사라졌다.

《알았어. 내가 보초를 설테야.》

영철이는 씩 웃으며 길쪽으로 뛰여갔다. 그리고는 나무밑둥에 노끈을 감아매고 다른 한끌은 막대기에 매서 돌을 모아 세워놓았다.

이윽고 멀리서 가볍고 부드러운 자동차소리가 들려왔다. 큰길을 따라 여러대의 승용차가 달려오고있었다. 앞에서 달려오는 까만 승용차는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렸다.

(누가 오실가?)

영철은 호기심이 나서 자세히 승용차들을 바라보았다. 웬일인지 승용차들은 얼마 멀지 않은 큰길가에 스르르 멎었다.

영철은 승용차들에서 여러 사람들이 내리는것을 보았다. 그분들은 길옆에 모여서시더니 눈에 덮인 농장밭을 바라보시는것이였다. 그분들의 뒤모습들을 눈여겨보는 영철은 은근히 걱정이 났다.

(혹시 이 오솔길로 올라들 오시면 어쩌나?)

아닌게아니라 그분들은 이야기를 나누시며 점점 오솔길이 뻗은 쪽으로 걸어오시였다.



그런데 영철은 그분들가운데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신다는것을 전혀 알리가 없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산간마을에 자리잡은 이곳 협동농장을 보살피시려고 머나먼 여기까지 몸소 찾아오시는 길이였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둘러선 아저씨들에게 말씀하고계시다가 문뜩 이렇게 물으시였다.

《참, 그 과수원은 어디에 있소?》

어느 한 아저씨가 영철이쪽을 가리켜드리였다.

《저 소년이 서있는 바로 옆에서부터 과수원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두손으로 허리를 짚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과수원을 살펴보시였다. 아버지대원수님의 눈길이 꼬마보초병의 모습에 미치시였다.

《아니, 저 애는 이 추운 날에 왜 저기 서있소? 가만있자. 저 애가 총을 메지 않았소? 저런… 배낭도 메구.》

부관아저씨가 오솔길로 뛰여왔다. 영철은 웬 아저씨 한분이 급히 달려오는것을 보자 정신을 번쩍 차리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어떻게 할가?)

달려오는 기세로 보아 멈춰세울것 같지 못했다. 가슴은 널뛰듯하였다.

(어쩌면 좋담?)

영철이는 길을 비켜드리자고 생각하다가 절로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졌다. 아동단원들은 절대로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영철아, 이건 장난이 아니고 명령이야!》 하던 대장아이의 말소리도 귀에 쟁쟁히 들려왔다.

(그렇다, 명령이다. 지나보낼수 없다.)

아저씨가 서너발자국앞에 다달았을 때 영철이는 소리쳤다.

《못 갑니다!》

《뭐?… 못 간다구?… 난 그저 예까지 왔다. 그런데 넌 웬애냐?》

《전 보초병입니다.》

《뭐? 보초병?…》

《예, 전 인민군대 보초병입니다.》

어깨에 멘 나무총이며 등에 진 큼직한 배낭이며 새빨간 령장을

바라보던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며 되물었다.

《그런데 왜 못 간단 말이냐?》

《여기는 철조망을 친 전투장입니다. 전투가 승리로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여기를 지나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저씨는 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영철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다. 영철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씩 웃었다. 아저씨까지도 명령을 지켜주는것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몰랐다. 노래라도 부르고싶었다. 부관아저씨의 말을 죄다 들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시였다.

《하하하… 거 참 똑똑한 보초병이요. 우선 저 꼬마영웅을 좀 만나봐야겠소.》라고 하시며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눈이 깔린 오솔길에 들어서시였다.

같이 오신분들도 아버지대원수님의 뒤를 따라섰다.

영철이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저도모르게 소리쳤다.

《아니?!…》

그처럼 뵈옵고싶던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계시지 않는가!

《아버지대원수님!》

영철이는 아버지대원수님께 소년단경례를 드리였다.

《누구의 명령을 받았다구?》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영철이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사실 대원수님께서 오신줄은 모르구 그랬습니다.》

《아니, 잘했어. 명령은 그렇게 지켜야 돼. 아주 잘했어.》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대견하신 눈길로 영철을 바라보시며 크게 칭찬하시였다.

《자, 보오. 우리의 어린이들도 명령을 훌륭히 지킬줄 아오.》하시며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함께 오신분들에게 매우 만족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자, 군사규률이니 우리도 지켜야지. 우리 여기서 잠간 기다립시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같이 오신분들에게 뜻있는 말씀을 하시고는 고지우로 눈길을 보내시였다.

《하하하… 저것 보오. 아주 용감한 군대들이요. 〈미제놈〉들을

막 쓸어눕히며 육박전을 하고있소.》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번개같은 동작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한참만에 《**김일성**대원수님！—》 하는 환호소리가 터지며 아이들이 달려왔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오신것을 알았던것이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두팔을 흔들며 껑충껑충 땅을 구르며 뛰여왔다.

어느덧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한복판에 서계시였다. 팔에 매달리고 품에 안기는 아이들을 한아이 한아이 따뜻이 쓰다듬어주시며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였다.

《누가 대장이냐？》

《예, 접니다.》

뒤에 서있던 대장아이가 동무들을 헤치며 앞에 한걸음 나섰다.

《그래, 〈미제놈〉을 얼마나 잡았느냐？》

《〈미제놈〉을 한 천오백놈 잡았습니다.》

《뭐？ 천오백놈？… 음, 대단한걸. 그래 모두 몇명이길래 그렇게 많은 적들을 잡았느냐？》

《아버지대원수님, 우리는 열다섯이지만 모두 일당백입니다.》

《하하하… 옳지 옳아, 우리 인민군대는 모두 일당백이지, 장하다！ 너희들도 일당백이구말구！ 미제놈들이 바로 이걸 무서워하거든.… 꼬마들이 대단해！》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대장아이앞에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시였다.

《대장동무, 이 꼬마보초병동무가 자기 임무를 아주 잘 수행했소.》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친히 꼬마보초병을 앞에 내세우시며 말씀하시였다.

《이 동무에게 영웅칭호를 주어야겠소.》

《예, 알았습니다.》

대장아이가 얼른 주머니에서 붉은별이 있는 훈장을 꺼내들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훈장을 받아드시더니 영철이의 앞가슴에 친히 달아주시였다. 아이들은 《야！》 하고 소리치며 힘껏 손벽을 쳤다. 웃으시던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자, 이젠 여기를 지나가도 될가？》 하고 물으시였다.

《예.》

대장아이가 힘있게 대답을 드렸다.

《그런데 이 보초병동무는 명령을 못 받았지, 아마?》

대장아이는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힘차게 명령하였다.

《보초병동무, 전투가 승리로 끝났으니 철수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영철이는 발뒤축을 모두며 힘있게 대답하고 재빨리 달려가 노끈을 풀었다. 그의 얼굴에는 보초병의 자랑과 긍지가 함뿍 어려있었다.

《너희들은 이다음에 훌륭한 인민군대가 되거라. 알았느냐? 일당백의 영웅들이 되여야 한다.》

《예.》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을 드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골짜기를 흔들며 메아리쳤다.

(박춘삼)

△ 글을 잘 읽자면

글을 잘 읽자면 먼저 글자를 빨리 보고 그것을 정확히 읽을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과서를 비롯하여 신문, 잡지 등 여러가지 활자로 된 글들을 자꾸 읽어보아야 합니다.

글을 잘 읽자면 다음으로 단어의 뜻과 문장의 사상을 새겨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글은 뜻을 새기면서 읽어야 틀리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게 줄줄 읽을수 있습니다.

글을 잘 읽자면 또한 발음보다 보는것이 앞서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는것이 앞서나가지 않으면 더듬거리면서 잘 읽을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처음엔 한 단어나 두 단어 앞서보기 훈련을 하다가 점차 수준을 높여 한줄쯤은 한눈에 다 볼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글을 잘 읽자면 또한 글을 읽는데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글읽기훈련은 소리를 내여 매일 정상적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읽기교재

3. 자동차는 전선으로 달린다

인민군용사들이 원쑤 미제놈들을 때려부시며 남으로 남으로 나아가던 어느날이였다.

전선에 포탄을 나르는 운전사인 나는 중대부에서 중대장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한 소년이 숨이 차서 달려들어왔다. 보매 심상찮은 얼굴빛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소년은 툭 내쏘듯 이렇게 물었다.

《중대장아저씬 어디 계십니까?》

《왜, 무슨 일이 있냐?》

나는 의아쩍은 눈매로 소년을 쳐다보았다. 딱 바라진 어깨며 동그란 눈 그리고 안장코 비슷이 끝이 잘쑥한 코날 등은 여간만 오달져보이는것이 아니였다.

기껏 잡아본대도 열네댓살 됐을는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나한테 말하면 안되냐?》

《중대장아저씨를 만나겠습니다.》

(아하, 이놈 봐라, 제법인걸.…)

나는 소년의 당돌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소년은 나와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맞은켠 벽에 붙어있는 구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걸 보십시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바치라고 하셨는데 우린 앉아서 책만 읽고있으니… 난… 난 아직도 미국놈들이 죽인 울아버지의 원쑤를…》

소년은 미처 말을 맺지 못한채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때마침 중대장이 들어섰다. 소년은 발딱 일어나 제법 차렷자세로 소년단경례를 하며 오달지게 물었다.

《중대장아저씨, 만날만 합니까?》

《아, 이거 아래마을 철호가 왔구만, 그래 공부랑 잘하나?》

중대장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친절하게 맞았다.

(아하, 얘가 꼬마항공감시원인 철호로군!…)

나는 며칠전에 중대장으로부터 소년들이 풀막을 짓고 적비행기를 감시하며 자동차를 지휘하고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중대장은 소년앞에 걸상을 내놓으며 말했다.

《자, 앉아라. 그래 나한테 이야기할게 뭐지?》

《인민군대아저씨들은 옳지 못합니다. 적비행기가 나타났다고 신호하는데도 막 차를 몰고…》

소년은 성난듯이 말했다.

《거야 운전수아저씨들이 잘 듣지 못해 그랬겠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중대장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묻자 소년은 한걸음 그의 앞에 선뜻 다가섰다.

《우리에게 신호총을 주세요.》

《뭐, 신호총을?!》

중대장의 얼굴엔 놀란 빛이 떠올랐다.

《아니, 넌 신호총을 쏠줄이나 아느냐?》

《제가 뭐 어린앱니까?》

소년은 자기를 어린애로 여기려는 중대장에게 이렇게 들이댔다.

《아하, 이거 어쩐다? 우리 꼬마감시원이 잔뜩 골이 났구만.…》

중대장은 잠시 방안을 거닐며 생각에 잠겨있다가 책상서랍에서 전지 하나를 꺼냈다.

《철호에게 신호총대신 이 전지를 주지. 우리 운수중대의 이름으로 말이야. 앞으로 호르래기로도 신호하고 또 이 전지불로도 신호를 하면 되겠어. 그리고 산으로 오르내릴 때에도 밤길에 상하지 않도록 전지불을 켜들고 다니란 말이야. 아주 밝아! 어디 한번 켜보지.》

소년은 너무 기뻐서 한동안 어쩔바를 모르고 중대장을 쳐다보았다. 소년의 눈은 샛별같이 반짝이였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너희들이 놈들의 비행기를 잘 감시해주니까 우리가 도리여 고맙지.》

나는 그때 눈시울이 화끈 달아올랐다. 중대장도 역시 그런 마음에 휩싸여있는듯싶었다.

중대장은 대견스레 철호를 바라보고있다가 이번에는 말끝을 돌

려 넌지시 이렇게 물었다.

《그래, 이젠 군대에 안 갈테냐?》

그는 시틋해서 주먹으로 코등을 쓱 문지르며 말을 이었다.

《안 보내주는걸요 뭐. 선생님이 적비행기를 감시하는것도 미제놈과 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분단총회에서 아동단원들이 항일유격대아저씨들을 돕던 그 정신으로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돕자고 토론하고 적비행기를 살피기로 결정했거든요!》

《참 훌륭한 결정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자 소년은 말없이 벌씬 웃으며 깍듯이 소년단경례를 한 다음 밖으로 달려나갔다. 밖에서는 철호의 힘찬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

나는 들창너머로 멀어져가는 소년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만만치 않아!)

전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렬해졌다. 우리 운수중대는 전선부대들에 더 많은 포탄과 탄약을 날라야 했다.

어느날 그믐밤이였다.

나는 우리 자동차대렬의 맨앞에서 포탄실은 자동차를 몰고 전선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나는 밝은 전지불만 한 작은 불만 켜고 차를 내몰았고 뒤차들은 불을 켜지 않고 따라왔다. 차들이 방금 철호네가 감시하는 비탈길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야무진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항공!… 항공!…》

《?!》

나는 급히 자동차를 세우고 앞을 살펴보았다. 한 소년이 손을 쳐들고 서있었다. 철호였다.

《적비행기예요. 어서 피하세요. 저기로요.…》 하며 깎아지른듯 한 벼랑밑을 가리켰다.

이때였다. 나의 머리우에서는 앙칼진 쇠소리가 왱— 하고 울렸다. 이어《뚜루룩… 뚜루룩…》하는 요란한 기관총소리와 함께 갑자기 땅이 움씰하며 불길이 확 드솟는것이였다.

《쾅!… 쾅쾅!…》

적비행기는 내 차의 작은 불을 보고 하늘에서 곤두박히며 기관총을 쏘고 폭탄을 던졌던것이다. 숱한 파편이 씽씽 귀전을 스쳤다. 어떤 파편은 자동차에 들이박히기도 했다. 귀청이 멍멍하고 매캐한 화약냄새가 눈을 뜰수 없게 확 풍겼다. 파편이 땅을 핥듯 쌩쌩 지나갔다.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였다.

(틀림없이 적비행기는 자동차를 보았다.… 적비행기가 다시 이곳에 꼰진다면?… 그땐…)

나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렇다! 내 한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자동차들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전선에서는 탄약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나는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동무들! 나는 빨리 앞으로 달리겠소. 동무들은 자동차를 벼랑밑으로 바싹 붙이시오!》

한바퀴 돈 적비행기들이 다시 머리우에 떠있었다. 나는 서둘러 자동차에 올랐다. 내 자동차가 움쭉 자리를 뜨려는 때였다.

《섯! 섯!》 하는 야무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앞이 환해지며 불줄기가 앞으로 쭉 내뻗치는것이였다.

나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아니, 저런… 철호가 전지불을 켜다니… 그러지 않아도 자동차가 적비행기에 발견되였는데…)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려는데 뜻하지 않게도 불줄기는 살같이 앞으로 내달리는것이 아닌가!

《?!… 저 애가?》

다음순간 나는 모든것을 짐작하였다. 자동차를 멈춰세운 다음 철호는 놈들의 비행기를 속여넘기기 위해 전지불을 환히 켜들고 마치 자동차가 달리는것처럼 앞으로 내달렸던것이다.

적비행기는 쏜살같이 앞으로 달리는 전지불을 따라 씽— 하고 내리꼰졌다.

《콰쾅! 쾅!》

귀청을 째는듯 한 폭탄소리가 울렸다.

《앗!》

내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튀여나왔다. 나는 소년이 달려간쪽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 불은 그냥 내달리지 않는가.



이때 다음비행기가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또 내리꼰졌다.

《철호!… 철호!》

나는 그를 부르며 내달렸다.

《뚜루룩… 뚜루룩… 쿵—쾅—》

기관총소리가 울리고 폭탄이 터졌다.

불길이 확확 이는 그속을 내달리던 전지불은 그만 강기슭 굽인돌이에서 꺼지고말았다.

미쳐날뛰던 적비행기들이 인민군고사포에 얻어맞아 떨어지자 나머지놈들은 남쪽하늘로 도망치고말았다. 나는 전지불이 꺼진 곳으로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갔다.

《철호! 철호!》

내가 강기슭 굽인돌이로 막 줄달음쳐갔을 때였다. 길가의 커다란 바위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얼씬하더니 철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 여기 있어요.…》

《살았구나！》

나는 철호를 와락 그러안았다.

《아무러면 내가 죽을라구요. 미제놈들의 눈깔은 썩은 동태눈깔이예요. 난 그놈들이 씽— 하고 내리꼰질 때 살짝 바위틈에 숨었죠 뭐. 폭탄을 던질게 뻔하거든요.… 폭풍에 조금… 아니 그것도 일없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이…

《！ ！…》

나는 뜨거운것이 가슴에서 욱 치밀어올라 한동안 말을 못하고 그저 《장해！ 장해！》 하고 다시 그를 힘껏 끌어안았다.

잠시후 철호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어서 떠나세요. 적비행기는 도망쳤어요.… 우리 몫까지 놈들을 족치고 오세요！》

소년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있었다.

내가 운전칸에 올라 발동을 걸자 철호는 《호르륵—》 하며 길게 호르래기를 불었다.

나는 누를길없는 격정을 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어. 우리는 꼭 승리해！)라고—

자동차들은 다시 전선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김룡익)

〔속 담〕

○ 하나를 알아야 열을 안다.

한꺼번에 풍부한 지식을 가질수 없으므로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말.

○ 열번 재고 가위질은 한번 하라.

무슨 일이나 이모저모 깊이 생각하고 따져본 다음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말.

말하기교재

4. 우리도 한마음

영순이네 반 동무들은 반모임이 끝나자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알려주는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먼저 영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는 인민군대아저씨가 물에 빠진 두 소년을 구원해준 감동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어느날이였어.

이날 두 학생은 분단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대. 지름길로 가느라고 바다가 좁은 곬의 얼음판우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쩡〉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만 파도에 얼음장이 갈라졌다누나. 순간에 벌어진 일이여서 두 학생은 오도가도 못하고 바다물에 빠졌대.

그때 초소를 돌아보던 분대장아저씨는 바다쪽 어데선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아이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소리를 듣고 달려갔대. 파도에 밀려가는 얼음장을 붙잡고 두 소년은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대.

바다에 뛰여든 아저씨는 있는 힘을 다해 파도를 맞받아 나아갔대. 바다물은 뼈를 에이는듯 차고 사나운 물결우엔 크고작은 얼음장들이 둥둥 떠다녔다누나. 아저씨는 겨우 한 학생을 먼저 기슭에 끌어올리고 또다시 사나운 파도속에 뛰여들었대. 몸은 꽁꽁 얼어들고 힘은 점점 진해지는데 얼음장들은 사정없이 아저씨에게 달려들었대. 그렇지만 아저씨는 목숨을 내대고 끝내 다른 학생까지 구원해냈대.

분대장아저씨의 온몸은 시퍼렇게 얼고 얼음장에 부딪쳐 피투성이가 되였다누나. 그러나 아저씨는 아이들을 구원한 기쁨으로 해서 얼굴엔 웃음을 짓고있었대.

마을사람들은 아저씨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대.

정말이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선생님의 전사인 우리 군대가 아니고서야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야.》

반동무들은 영순이가 알려주는 소식을 들으면서 모두가 인민군대아저씨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혜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소년신문〉에는 수림중학교 제7분단 리철호동무와 그의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더구나.

철호동무는 어느날 군사임무를 수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해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인민군대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대.

그는 아저씨의 치료를 힘껏 도우리라 마음먹고 분단동무들에게 호소했대. 그러자 모두가 철호동무의 생각을 지지해나섰대.

철호네 동무들이 글쎄 병원으로 달려가 저마다 제 피를 뽑아달라고 팔을 걷고 나서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누나.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영웅들의 수기집과 전투기록장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아저씨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대. 그리구 위문편지도 정성껏 써가지고 가서 읽어드리구 보약도 마련해드렸다누나.

그들은 아저씨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 강에 나가 물고기도 잡아오고 고향의 향긋한 맛을 주는 달래로 김치도 담그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대.

아저씨가 처음으로 공원에 산보하러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도 기뻐 꽃다발을 가지고 찾아가 오락회도 하며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렸대.

이렇게 해서 아저씨는 더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초소에 서게 되였단다.》

이날 영순이네 반 동무들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이 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민군대를 돕는 일을 더 잘해나갈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말에서 끊기

끊기란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말이나 글의 요구에 따라 말을 끊어주거나 쉬는것을 말합니다.

끊기는 말이나 글의 내용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하게 됩니다.

끊기는 길이에 따라 길게끊기, 중간끊기, 짧게끊기, 순간끊기로 나누입니다.

길게끊기는 문장이 끝났을 때 쉬는 끊기입니다. (///)

○ 나는 최우등을 했어요. ///

중간끊기는 문장의 도중에서 가장 길게 쉬는 끊기입니다. (//)

○ 선생님, // 책을 가져왔습니다.

짧게끊기는 단어사이에 나타나는 끊기입니다. (/)

○ 영희는 학습에서도 최우등, / 조직생활에서도 / 모범입니다.

순간끊기는 단어사이에서 가장 짧게 쉬는 끊기입니다. (∨)

○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 준비하자.

글짓기교재

5. 백 리 향

우리 집 창문가에는 백리향꽃이 망울져있습니다. 이 꽃은 식물원의 원예사인 어머니가 경사로운 광명성절에 피우자고 가져온것입니다.

백리향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싱싱 잘도 자랐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갑자기 출장을 떠나게 되시였습니다.

《정호야, 그동안 이 꽃나무를 잘 키워야 한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꽃나무가꾸기》책을 주시였습니다.

《걱정마세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꽃나무를 멋지게 키워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 번지지 않고 화분에 물을 흠뻑 주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학습반에 갔다오니 싱싱하게 자라던 꽃나무가 축 늘어져있는것이였습니다.

(잎들이 저렇게 시드는것을 보니 아직 물이 모자라는것 같애.)

급히 부엌으로 달려간 나는 물 한바가지를 떠다주었습니다. 그리고 꽃나무가 추워하는것 같아 따뜻한 아래목에다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꽃나무는 점점 시들어들더니 이젠 잎들이 누렇게 뜬 배추잎처럼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생각하던 끝에 옆집에 사는 영철이를 찾아갔습니다.

《영철아, 야단났어. 우리 집 꽃나무가 다 시들어 죽을것 같아.》

나는 영철이의 손목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말하였습니다.

《네가 물을 잘 안 준게로구나.》

《물은 많이 주었는데 뭐.》

《그래? 거참 조화로구나.》

영철이는 알수 없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너무도 안타까와 꽃나무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백리향꽃나무야, 넌 뭘 먹어야 살겠니? 어서 말 좀 해봐. 응?》

내가 속을 태우고있는데 뜻밖에도 출장갔던 어머니가 돌아오시였습니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품에 와락 안기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꽃나무가 저렇게 죽어가요.…》

어머니는 꽃나무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얘 정호야, 너 내가 출장떠날 때 준 책을 보고 물을 주었니?》 하고 물으시였습니다.

순간 나는 책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전 물이 모자라서 그러는줄 알고 물만 자꾸 주었어요.》

어머니는 알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제라도 책을 읽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나는 얼른 책을 들고 읽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꽃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었기때문에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썩어간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나는 그만 어머니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정호야, 어떤 일이든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할수 없는 법이란다.》

나는 어머니의 이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난 정말 바보였어.)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아무리 열성이 높다 해도 알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았어요.》

《네가 이번에 아주 귀중한걸 깨달았다.》

화분에 새 흙을 깔아주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그날부터 백리향은 탐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이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탄생기념일엔 나의 마음인양 꽃이 곱게곱게 피여나 향기로운 냄새를 한껏 풍길것입니다.

△ 이야기글

이야기글이란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이야기식으로 쓰는 글입니다.

이야기글은 짤막한 줄거리를 가지고 쓰인다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이야기글은 글의 알맹이와 함께 이야기감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주위생활에서 본것, 들은것 가운데서 가장 감동된 일들을 찾아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글은 글차례를 잘 세워 써야 합니다. 이야기글차례는 이야기가 벌어진 순서대로 재미있게 엮어야 합니다.

이야기글은 사실, 사건들과 함께 인물들의 대화, 묘사를 잘 섞어 쓰는것이 좋습니다.

이야기글은 또한 생활적인 말로 진실하게 써야 합니다.

읽기교재

6. 백두밀영고향집

정일봉기슭의
통나무귀틀집
경애하는 원수님
탄생하신 고향집

장군별 빛나는
백두산 하늘높이
향도의 별 솟아오른
자랑많은 고향집

소백수 감도는
추녀낮은 귀틀집
경애하는 원수님
자라나신 고향집

항일의 총포소리
자장가로 들으시며
새 나라 빛내이실
담을 키운 고향집

오늘도 그날처럼
소박한 귀틀집
꿈속에도 달려가는
백두밀영고향집

향도의 해발아래
꽃피는 내 나라
긍지높이 굽어보는
우리우리 고향집

(구형회)

읽기교재

7. 달나라만리경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이다.)

어느해 달나라에서 있은 이야기입니다.

달나라에 있는 계수나무동산에는 흰토끼형제가 살고있었습니다. 흰토끼형제는 매일과 같이 금절구로 월계향이라는 약을 찧어냈습니다. 달나라에 사는 토끼들은 어떤 병에 걸려 앓아도 이 약만 먹으면 씻은듯이 낫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토끼가 병에 걸려 절구질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서는 월계향을 제대로 만들어낼수 없게 되였습니다.

토끼왕의 어명을 받은 토끼의원들은 동생토끼를 위하여 처방을 1만가지나 내고 약을 300상자나 만들었습니다. 그 약을 다 써보았지만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달나라에서 제일 의술이 높다고 하는 긴수염토끼의원이 지구에 내려가 약을 구해다가 동생토끼를 치료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아뢰였습니다.

토끼왕은 만리경을 내주면서 지구를 잘 살펴보고 약을 구할만한 고장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달나라만리경으로는 아무리 먼곳도 가까이 당겨볼수 있고 작은것도 크게 볼수 있으며 냄새도 가늠할수 있고 그 물건이 내는 소리까지도 엿들을수 있었습니다.

긴수염토끼의원은 만리경으로 지구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흘만에 경치가 참말로 아름답고 꽃향기가 넘쳐나는 한 나라를 찾아내였습니다. 긴수염토끼의원은 토끼왕에게 그 나라에 대하여 아뢰였습니다.

토끼왕은 지구에 대하여 잘 안다는 반달토끼박사를 월궁으로 불러들이도록 하였습니다.

반달토끼박사는 월궁으로 불리워가서 만리경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나라를 내려다보고나서 토끼왕에게 《그 나라는 맑은 아침의 나라라고 합니다. 맑은 아침의 나라에는 예로부터 산삼과 록용을 비롯하여 불사약과 불로초 같은 세상에 진귀하기로 소문난 명약이 수

없이 많으니 그 나라에 가서 효험이 높은 약을 구해오는것이 지당할줄 압니다.》라고 아뢰였습니다.

이때 형토끼가 토끼왕앞에 엎드리며 《저를 맑은 아침의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어서 허락해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렸습니다.

토끼왕은 빨리 맑은 아침의 나라에 내려가서 진귀한 약을 구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형토끼는 곧 구름을 타고 월궁을 떠났습니다. 형토끼는 얼마후 지구우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형토끼가 내린 고장은 산들이 모두 벌거숭이가 되였고 달나라에서 내려다볼 때와는 판판 다른 곳이였습니다.

형토끼는 가까이에서 재빛토끼 한마리가 급히 뛰여 달아나는것을 보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형토끼는 이곳이 맑은 아침의 나라가 분명한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빛토끼는 그렇다고 하면서 왜 그러는가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형토끼가 달나라에서 약을 구하러 온 사연을 한창 말하고있는데 어디선가 야무진 총소리가 골짜기를 들었다놓았습니다. 재빛토끼는 어서 피하자고 말하고는 황급히 달아나버렸습니다.

머리를 기웃거리며 산속오솔길을 걸어가던 형토끼는 멀리서 급히 달려오는 사슴을 만나게 되였습니다. 형토끼는 사슴에게 인사를 한 후 자기가 달나라에서 진귀한 약초를 구하러 내려온 토끼인데 도와줄수 없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사슴은 깊은 한숨을 짓더니 형토끼에게 여기는 약초는커녕 한끼 먹을 풀조차 없는 못살 고장이다, 그래서 자기도 살 곳을 찾아 떠나는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슴이 말끝을 맺는 순간 또다시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슴은 기겁을 하여 땅바닥에 바싹 엎드렸고 형토끼도 얼결에 사슴옆에 함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숨을 돌린 사슴은 그 소리가 바다건너에서 기여든 승냥이가 쏘는 총소리라고 하면서 그놈은 세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원쑤라고 하였습니다.

사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어서 피하라고 하고는 다시 뛰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또다시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뛰여가던 사슴이 앞으로 푹 꼬꾸라졌습니다. 얼마후 간신히 일어난 사슴은 피가 흐르는 다리를 끌고 령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하늘을 날아가던 까치가 형토끼에게 살려거든 어서 이곳

을 떠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겁에 질린 형토끼는 급히 구름을 불러 타고 달나라에 가서 왕에게 지구에서 보고 들은 기막힌 사연을 죄다 아뢰였습니다.

토끼왕은 그의 말을 듣고 반달토끼박사를 불러들이게 하였습니다. 반달토끼박사는 형토끼의 말을 듣고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하면서 만리경으로 지구를 다시 내려다보다가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토끼왕앞에 나서서 아뢰였습니다.



《맑은 아침의 나라는 북과 남이 판이하게 다르옵니다. 제가 전번에 만리경으로 내려다본 곳은 북쪽이였는데 형토끼의 말을 들으니 남쪽에 갔다온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북쪽에 가면 틀림없이 진귀한 약초를 구해올수 있을줄 압니다.》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을 뚝뚝 떨구고있던 형토끼는 다시 지구에 내려가 기어이 진귀한 약초를 얻어오겠다고 토끼왕에게 청을 드

렸습니다.

토끼왕의 허락을 받은 형토끼는 다음날 구름을 타고 다시 지구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밝은 아침의 나라의 북쪽땅에 내린 형토끼는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곳은 산마다 푸른 숲이 우거지고 갖가지 열매가 주렁졌으며 이름조차 알수 없는 온갖 새가 지저귀며 꽃피는 동산, 열매 주렁진 풍성한 동산을 노래하고있었습니다.

형토끼는 다래넝쿨을 타고 즐겁게 그네를 뛰고있는 한 토끼를 만났습니다. 형토끼는 그 토끼가 남쪽에서 만났던 재빛토끼라는것을 인차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재빛토끼는 형토끼의 손을 잡고 전번에는 승냥이에게 온 가족을 다 잃고 쫓겨다니던 때여서 도와주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사과하는것이였습니다.

형토끼는 그에게 약초가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재빛토끼는 그를 약초밭으로 데리고가서 불로초를 한아름 뜯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재빛토끼는 형토끼를 사슴동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형토끼는 사슴동산에서 뜻밖에도 죽은줄로만 알았던 사슴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사슴은 정말 밝은 아침의 나라 북쪽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잘 먹고 무상으로 치료받는 락원가운데서 제일 좋은 지상락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형토끼는 밝은 아침의 나라 북쪽에서 재빛토끼와 사슴을 비롯한 여러 짐승들의 환대를 받으며 사흘동안 쉰 다음 진귀한 약을 많이 얻어가지고 달나라로 향하였습니다.

달나라에 도착한 형토끼는 토끼왕앞에 가지고온 약을 내놓으며 《밝은 아침의 나라는 행복한 북쪽땅과 불행한 남쪽땅으로 갈라져있는데 제가 금방 다녀온 북쪽땅은 지상락원이지만 전번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남쪽땅은 생지옥입니다. 그런즉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도 이 나라에 있고 제일 불행한 곳도 이 나라에 있습니다. 밝은 아침의 나라는 원래 하나였는데 승냥이가 나라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 싸우고있습니다.》라고 아뢰였습니다.

그제야 토끼왕은 머리를 끄덕거리며 만리경으로 밝은 아침의 나라 북쪽땅을 내려다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토끼왕은 지구에 저렇듯 아름다운 나라,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곳

이 있는것은 지구의 자랑이고 온 우주의 영광이라고 소리높이 웨쳤습니다.

그후 동생토끼의 병은 밝은 아침의 나라 북쪽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씻은듯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흰토끼형제는 다시 금절구로 월계향을 찧기 시작하였고 달나라에는 또다시 금절구소리와 함께 기쁨이 넘쳐나게 되였습니다.

지금도 보름달을 자세히 살펴보면 흰토끼형제가 절구질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절구질소리도 들리는듯 합니다.

〔속 담〕

○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
　큰 목적을 이루려면 조건이 지어질것을 기다리지 말고 고난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조건을 마련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함을 이르는 말.

○ 아는체 하지 말고 모르는체 하지 말라.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말.

읽기교재

8. 어머님의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도

봄빛이 무르익어가던 주체63(197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함경북도 온성일대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렬차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동해기슭을 따라 힘차게 달렸다.

어느덧 렬차는 청진, 고무산을 지나 회령땅에 들어서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일군들은 걷잡을수 없는 흥분으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회령에 꼭 모셔야 하겠다는 생

각이 간절하였던것이다.

한 일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음 도착할 역이 회령이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며 《회령！…》하고 조용히 되뇌이시였다.

《그래 회령이란 말이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며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으시는듯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회령！ 그곳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 어린시절 어머님의 품에 안기시여 만경대와 더불어 그려보시던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시여 왜놈들과 지주놈들의 갖은 천대와 박해속에서도 래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 혁명의 큰뜻을 키워오신 유서깊은 땅, 손에 총을 잡고 혈전만리를 헤치시던 항일의 그 나날에 꿈에도 못 잊어하시던 사무치게 그리운 고장이였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김정숙어머님께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사사로운 일로 고향을 먼저 찾아보겠는가고 하시면서 그리운 고향산천을 그려보기만 하시던 잊지 못할 회령이였다.

그러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머님을 대신하여 회령땅을 한번 찾아보고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랴.…

그 시각 회령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회령읍을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앞을 다투어 정거장으로 모여들었다.

자나깨나 마음속깊이 흠모하여오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머님의 고향인 자기 고장에 꼭 모시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던것이다.

그들은 그처럼 고향땅을 그리워하셨으나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신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누르며 이제나저제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렬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렬차의 은은한 기적소리가 산너머에서 들리자 군중은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가는 일군들은 회령역이 가까와질수록 초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번에는 다른 한 일군이 또다시 경애하는 장군님께 정중히 말

씀드렸다.

《이번 기회에 잠시라도 들려주십시오.》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아니요. 이다음에 들리겠습니다.

청년건설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머님의 고향집부터 찾겠습니까!》

렬차는 속력을 늦추며 회령역에 들어서고있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차안을 천천히 거니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기차를 세우지 말고 곧바로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장으로 가자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북받치는 격정에 가슴이 뜨거워올라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천천히 차창으로 다가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회령의 산발이며 높고낮은 언덕들, 읍거리의 아담한 집들이며 키높이 자란 나무들, 모든것이 정답게 안겨오는 어머님의 고향산천을 감회깊이 바라보시였다.

물결처럼 흘러가는 회령읍을 바라보시며 움직일줄 모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숭엄하였다.

오직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위업을 받드시는 한마음으로 잊을수 없는 회령땅을 묵묵히 바라보시며 지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우리 인민이 영원한 기억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가장 거룩한 영상이였다.

일군들도 눈시울을 적시며 굳어진듯 그 자리에 서있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는 일을 이 세상 모든 일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시며 제일 첫자리에 놓으시고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어느덧 렬차는 역구내를 벗어나고있었다.

회령사람들은 렬차가 그냥 지나자 발을 구르며 어찌할바를 몰라하다가 약속이나 한듯 렬차를 따라 달리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목메여 부르고 또 불렀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김정숙어머님을 대신하여 한순간이라도 회령땅에 모시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눈물이였다.

렬차는 잊지 못할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는듯 은은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저 멀리 사라져갔다.

아득히 멀어져가는 렬차를 지켜보며 서있는 회령사람들의 가슴에는 더더욱 크나큰 격정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들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사람들의 가슴을 한없이 격동시키며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지는 만경대의 갈림길이 선히 떠올랐다.

조국에 개선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20년만에 처음으로 찾아주신 만경대,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고 늙으신 조부모님께서 계시는 고향집을 지척에 둔 만경대, 그 만경대의 갈림길이였건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고향집에 들리지 않으시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그리운 마음의 고향인 회령땅을 지척에 두시고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북변의 청년건설자들부터 찾으시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이날의 불멸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달리는 렬차를 오래도록 바래였다.

글짓기교재

9. 충정의 한마음 변함없으리

8월 6일 화요일 개임

오늘은 평양견학의 첫날이다.

우리는 이른아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로 갔다.

만수대언덕으로는 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쉬임없이 흘렀다.

우리는 정성 다해 만든 꽃다발을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드리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나는 가슴속에 넘쳐나는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보았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정하신 음성으로 너희들 언제 왔느냐, 그새 앓지 않고 공부를 잘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따뜻이 안아주시는것만 같았다.

나는 우리들을 자애로운 품에 안아주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북받쳐 눈굽을 적시였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선참으로 돌려주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순간인들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래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보고 또 보았다.

8월 10일 토요일 개임

평양견학의 또 하루가 지나갔다. 견학의 하루하루가 왜 그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조선혁명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우리는 숭엄한 마음을 안고 박물관의 여러 호실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한장의 사진, 한점의 유물앞에서도 우리는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느꼈다.

세상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같이 한평생을 오로지 혁명을 위해 바치시며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분은 없다.

하기에 온 세계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위대하신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신것은 우리의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다.

나는 이 영광, 이 자랑을 언제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

하겠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꽃피우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모시는 참된 소년단원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겠다.

△ 일 기

일기란 하루의 생활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의의깊은것들을 간단히 적는 글입니다.

일기를 쓰면 스스로 자신을 옳바로 이끌어가게 되고 글짓는 솜씨도 키우게 됩니다.

일기는 하루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골라 써야 합니다.

일기는 자신이 보는 글이므로 량심의 거울이 되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써야 합니다.

일기의 내용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름, 장소, 날자 등은 정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일기는 날자와 요일, 날씨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일기는 제목을 달고 쓰는것이 좋습니다.

읽기교재

10.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랄라 랄라 랄 라라 랄라랄라라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벗들이 부어준 한모금 물도
내 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랄라 랄라 랄 라라 랄라랄라라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노래도 아리랑곡조가 좋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랄라 랄라 랄 라라 랄라랄라라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 곳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랄라 랄라 랄 라라 랄라랄라라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최준경)

읽기교재

11. 기 관 총

소년선봉대 책임자 박경호는 이른새벽에 민우식, 조성구를 데리고 샤오왕칭(소왕청)내가로 나갔다. 동무들과 함께 야오잉거우(요영구)로 가기 위해서였다. 내가에 이르니 마촌소년선봉대원 신옥녀가 동무들과 함께 벌써 와있었다.

경호는 동무들을 둘러보면서 말하였다.

《얘들아, 스리핑(십리평)아이들이 올 때까지 물고기잡이를 하는게 어때?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유격대아저씨들에게 드리잔 말이야.》

《야, 아주 멋진 생각인데!》

《누가 먼저 큰 고기를 잡나 내기할가?》

그들은 모두 좋다고 손벽을 쳤다. 그리고는 바지가랭이들을 걷어올리고 개울에 들어섰다.

고기잡이에 한창 신바람이 났는데 스리핑의 만수와 영남이가 나타났다. 만수는 배낭을 풀숲에 벗어던지더니 신발을 벗는것이였다.

《들어오지 말어! 이제는 떠나야 해.》 경호의 말이였다.

동무들은 물고기꿰미들을 들고 언덕을 향해 기우뚱거리며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신발을 신고 배낭들을 지면서 길떠날 준비에 분주하였다.

이때 스리핑쪽에서 누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6～7명은 잘될상싶었다.

《얘들아, 저게 〈토벌대〉놈들 아니가?》 하고 누군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일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제각기 총들을 메고 기관총까지 가지고오는것으로 보아 《토벌대》놈들이 분명하였다.

《얘들아, 배낭들을 도랑에 숨기구 빨리 물고기잡이를 하는척하자!》

경호의 말이 떨어지자 동무들은 눈깜빡할사이에 신발을 벗고 다시 내물로 들어갔다.

《토벌대》놈들은 조반을 지어먹을 잡도리였다. 몇놈은 내가언

덕밑으로 내려갔고 장교인듯 한 놈은 기관총수를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섰다.

경호는 계속 물고기잡이를 하는척 하면서 놈들이 멘 기관총과 보총을 보았다. 한없이 탐이 났다.

(저것을 빼앗으면 얼마나 좋을가!)

경호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어이! 이리로 모두 나와!》

강변에 이른 장교놈은 하늘에 대고 권총까지 쏘면서 위협하였다.

(흥, 나가면 네놈들이 어쩔셈인가?)

이렇게 생각한 경호는 동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하였다.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둘 내물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거기들 앉아라.》

장교놈은 담배를 붙여물면서 제법 부드럽게 지껄였다. 얼굴에는 수염이 절반이나 덮였는데 면도는 언제 해보았는지 반치는 잘될 상싶었다.

《얘, 너희들 유격대본부가 어디 있는지 알지?》 하고 장교놈이 물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나요.》 하고 경호가 대답하였다.

《모른다구? 좋다. 천당에나 가고싶으면 모른다고 해라! 아까 이것 쏘는것 봤지?》하고 장교놈은 옆구리에서 다시 권총을 뽑아들었다. 경호는 장교놈에게 와락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아가지고 한방 갈겨대고 달아나고싶은 생각이 불쑥 일어났다. 그의 시선은 줄곧 장교놈이 들고있는 권총과 언덕에 버티여놓은 기관총으로만 교차되였다.

경호의 아버지는 유격대의 용감한 기관총수였다. 그가 작년 가을에 수많은 적들을 쏘아눕히고 적탄에 맞아 희생되였을 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투장에서 유격근거지로 돌아오시는 즉시로 경호네 집을 찾아오시였다.

열다섯살이였던 경호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장군님께 부탁하였다.

《장군님! 제가 후에 유격대에 들어가두 우리 아버지가 쏘던 기관총을 맡겨줄수 있습니까?》

《그건 단단히 약속할수 있지. 경호두 꼭 기관총수가 되라구!》

이때부터 경호는 유격대원들이 사격훈련을 할 때에는 언제나 기관총수곁에 가있군 하였다. 그리하여 경호는 며칠사이에 기관총 다루는 법을 익혀 제법 사격도 할수 있게 되였다.

이때 기관총수놈이 도랑쪽으로 갔다가 배낭을 한아름 안고와서 장교놈앞에 내동댕이쳤다.

장교놈은 한 배낭을 헤쳤다. 거기에는 수수쌀과 소금, 작은 남비와 숟가락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하는거야?》 장교놈은 큰 단서라도 잡은듯이 호통을 쳤다.

《물고기를 잡아서 어죽을 쑤어 먹을겁니다.》

《어죽?》

《예, 어죽이 얼마나 맛이 있기에 그러세요.》

장교놈은 들은척도 안하고 또 다른 배낭을 뒤졌다. 성냥과 자작 만든 권총까지 더 있었다.

《이건 어느 놈의거야?》

장교놈은 나무권총을 강물에 첨벙 내던졌다.

《왜 남의 권총을 던져요. 빨리 꺼내줘요.》 영남이는 장교놈을 쏘아보며 대들었다.

《요자식이 누구한테 대드는거냐.》

장교놈은 영남이를 기관총앞에 내다세웠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였다.

《그래 너두 유격대본부를 모르느냐?》

《모릅니다.》

성구는 동가슴을 내밀고 똑똑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좋다! 네놈두 저쪽에 서라!》

이때 기관총수놈이 얄팍한 책 한권을 얻어서 장교놈한테 주었다.

《응! 왕칭(왕청)아동단학교 4학년 민우식!〉 민우식이가 누구냐?》

《나요.》

우식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와 각오의 빛이 넘쳐흘렀다.

《유격대본부가 어디냐? 그것만 대면 살려줄테다.》

《난 모르오.》

《모른다구？ 유격근거지안에서 아동단학교에 다니는 놈인데 유격대본부를 모른다구. 칙쇼！》

장교놈의 큰 주먹은 어느덧 우식이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네놈두 저쪽이다. 어이, 야마모도, 기관총준비가 됐는가？ 새끼빨갱이들을 천당으로 보내란 말이다.》

《하！》

기관총수놈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후닥닥 일어서더니 옥녀에게로 달려들어 그가 들고있는 물고기꿰미를 빼앗아냈다. 그리고 밥을 짓고있는 졸병놈들이 있는데로 내려가는것이였다.

《네가 대겠냐？》

장교놈의 권총은 옥녀의 앞으로 갔다.

《모른다！》

《좋다. 너두 저쪽이다.》

장교놈은 만수에게로 권총을 돌렸다.

《너두 말하지 않겠냐？》

《난 유격대본부가 뭔지 알지도 못한다！》

《너두 저쪽이다！》

장교놈은 다시 경호를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너도 유격대본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지？》 하고 물었다.

이때 경호에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놈의 곁에 접근하여 그놈이 마음을 놓고있을 때에 와락 달려들어 권총만 빼앗으면 모든것이 해결될것이 아닌가. 일은 기관총수놈이 올라오기 전에 해내야 하는것이였다.

《압니다.》

장교놈은 버드렁이를 허옇게 내놓고 반신반의하며 경호의 곁으로 다가섰다.

경호는 큰 배나무골을 스쳐보았다.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유격대원들의 회의장이구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집이 유격대식당이구요. 저기…》

장교놈은 경호의 어깨를 짚으며 경호가 가리키는쪽을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놈은 권총을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고있었다. 순간 경호는 있는 힘을 다하여 권총을 쥔 장교놈의 팔을 주먹으로 내리쳤

다. 장교놈은 권총을 털렁 떨어뜨렸다. 그러자 기관총앞에 나란히 섰던 동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경호는 권총을 날쌔게 그러쥐였다. 그리고 장교놈의 가슴팍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장교놈은 비명을 지르며 너부러졌다. 경호는 다시 기관총 있는 곳으로 달려가 꿇어앉았다.



《빨찌산이다!》

물고기를 졸병놈들에게 주고 올라오던 기관총수놈은 미친듯이 고아대면서 뛰여오기 시작하였다.

《얘들아, 빨리 피하라.》 경호가 소리쳤다.

빨찌산이라는 소리에 얼이 빠진 졸병놈들도 일본말로 뭐라고 지껄이며 갈팡질팡하였다.

경호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관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따따따…》

뛰여오던 기관총수놈도 졸병놈들도 삼대 쓰러지듯 자빠졌다.

경호는 놈들이 몽땅 쓰러질 때까지 그냥 기관총을 쏘았다.

언덕아래 숨었던 아이들은 경호가 있는데로 달려오면서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경호와 우식이는 기관총을 메고 다른 동무들은 장총들을 제각기 멨다. 그리고 경호는 옆구리에 권총까지 찼다. 그들은 재빨리 산판으로 들어갔다. 봇나무들과 이깔나무들이 하늘을 찌를듯이 솟았고 머루, 다래덩굴이 얼기설기 엉키여있었다. 장군님께서 계시는 야오잉거우를 향해 가는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강효순)

〔속 담〕

○ 소뿔은 단김에 빼라.
어떤 일이든지 생각났거나 시작한김에 기세를 올려 해치워야지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말.

○ 손가락도 길고 짧다.
무엇이든지 서로 차이가 있기마련이라는 말.

12. 조선의 제일봉

백두의 천리수해우에 거연히 솟아있는 **정일**봉!

정일봉은 만경봉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혁명의 봉우리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희망의 봉우리, 향도의 봉우리로 온 세상에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소백수골에 이르러 높이 솟은 룡마바위와 장검바위의 기슭을 지나면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의 뜨락에 들어서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자라나신 어린시절의 추억을 불러주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고향집뜨락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송시비를 우러러보게 된다.

백두산정 **정일**봉
소백수하 벽계류
광명성탄 오십주
개찬문무 충효비
만민칭송 제동심
환호성고 진천지

송시비앞에서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머리를 들면 조선의 제일봉으로 높이 솟은 **정일**봉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정일봉은 백두산의 장군봉줄기가 서남방향으로 뻗어내리면서 이루어진 소백수골의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다.

정일봉의 해발고는 1 798m이다.

정일봉은 그 놓임새와 생김새가 명산가운데서도 명산이다.

소백수골안의 **정일**봉을 중심으로 하여 갈기를 날리는 룡마같은 룡마바위와 장수가 장검을 벼린다는 장검바위가 놓여있다.

백두산밀영이 개영되던 뜻깊은 날에는 장수봉으로 불리우기도 했던 봉우리가 오늘은 그 이름도 빛나는 **정일**봉으로 불리워 조선

의 제일봉, 영광의 봉우리로 이름을 떨치고있다.

새벽이면 흰구름이 허리를 감돌고 노을이 곱게 피는 아침이면 남먼저 봉우리를 붉게 물들이는 **정일**봉!

맑은 아침에는 깎아세운듯 한 절벽이 그대로 하나의 거울이 되여 천고의 밀림에 빛을 뿌려주고있다.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에서 **정일**봉의 정점까지의 높이는 216.42m이다.



백두산밀영의 고향집뜨락에서 **정일**봉의 숭엄한 모습을 바라보느라면 면바위와 선바위의 가운데 《**정일**봉》이라고 새긴 붉은 글자가 뚜렷이 부각되여 안겨온다.

굵은 획에 활달하면서도 힘있게 새겨진 글발은 글발의 위치와 글자들의 크기, 획의 굵기, 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훌륭히 완성된 기념비적걸작이다.

이 글발은 이곳을 찾아오는 답사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주체의 혁명위업

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갈 결심을 더욱 굳게 하여준다.

정일봉은 이처럼 놓임새와 생김새가 기묘하고 웅장할뿐아니라 갖고있는 경치가 아름다와 찾아오는 사람마다 쉬이 발길을 떼지 못한다.

정일봉과 그 주변에는 키높이 자란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오리나무, 봇나무들이 숲을 이루고있으며 기묘한 바위들사이에는 진달래를 비롯한 떨기나무들이 군데군데 뭉쳐 자란다.

겨울이면 나무의 가지마다, 잎새마다 햇솜뭉치같은 함박눈을 수북수북 떠이는가 하면 서리꽃을 하얗게 피워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7～8월이면 만병초, 고산싱아, 두메국화, 좀참꽃, 담자리참꽃같은 높은 지대의 꽃들이 한껏 피여나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룬다. 이 꽃들은 해발고가 높은 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므로 다른 꽃들에 비하여 색이 선명하고 아름다와 높은 산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한 자연풍경을 펼쳐놓는다.

정일봉과 그 주변에는 또한 불로초, 단너삼, 만삼, 왕대황을 비롯한 약용식물과 고사리, 더덕, 버섯, 무수해, 닥지싹, 우정금, 고비를 비롯한 산나물들이 자라고있으며 넓은잎정향나무, 백산차를 비롯한 향료식물들이 있어 진한 향기를 풍긴다.

키높이 자란 나무의 가지들사이에는 송라가 그물처럼 휘늘어져있고 바위들과 진대나무마다에는 사슴이끼가 덮여있어 태고연한 밀림의 풍치를 한눈에 볼수 있다.

정일봉과 그 주변에는 리로운 동물도 수없이 많다.

천고의 밀림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선범을 비롯하여 큰곰, 검은돈, 산달, 수달, 백두산노루, 사향노루, 메돼지 등 수십종의 짐승들이 떼지어 다닌다.

그리고 메닭, 꿩, 부엉이, 딱따구리, 백두산긴꼬리올빼미, 물새, 메새와 같은 100여종이 넘는 새들이 깃을 펴고있다.

정일봉앞으로 흐르는 소백수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소백수골에 여울물소리 높이 울려주는데 여기 맑은 물에는 찬물을 좋아하는 산천어가 꼬리치며 떼지어 다닌다.

전국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물론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외국의 벗들과 국가지도자들도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을 때마다 뜨락과 **정일**봉에 진귀한 나무들과 향기그윽

한 꽃들을 심고있다.

그리하여 **정일**봉의 아름다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며 꽃과 나무를 찾아 리로운 짐승들과 새들이 찾아들어 여러가지 생물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참으로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을 지켜 높이 솟은 **정일**봉은 조선의 제일봉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과 확고한 의지를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을 새겨넣은 **정일**봉!

정일봉은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함이 없이 백두의 지심깊이 뿌리내리고 혁명의 사령부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만년초병처럼 옹호보위하는 혁명의 봉우리로 높이 솟아 우리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에로 힘있게 고무하며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말하기교재

13. 우리 집의 경사

영철이는 삼촌에게 전화를 하려고 체신소에 갔습니다. 공중전화를 거는 칸에 들어서니 빨간색전화통이 걸려있었습니다.

영철이는 돈을 넣고 송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붕— 하는 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영철이는 가볍게 번호판을 돌린 다음 송수화기에 대고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세요, 기계공장 계획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장의 조카입니다. 우리 삼촌이 계십니까?》

《예, 과장동지와 전화를 바꾸겠습니다.》

《삼촌입니까? 제가 영철이예요.》

《응, 내가 삼촌이다. 아니, 평양에 갔다 언제 왔느냐?》

《벌써 며칠됐어요.》

《그래, 네가 **김일성**소년영예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다. 축하한다.》

《삼촌, 고마와요. 우리 집에서는 이번 광명성절을 맞으며 수많은 경사가 났어요.》

《무슨 경사냐? 정말 내가 오래동안 출장을 가있다보니 너희 집에 가본지가 오래됐구나.》

《경사가 너무 많으니 무슨 말부터 먼저 할가요.》

《애두, 어서 말해라.》

《할아버지는 휴양소에 떠난지 며칠됐어요.》

《그것이 제일 큰 경사냐?》

《아니예요. 왜 채 들어보시지도 않구 그러세요. 인민군대에 나간 둘째형님은 적간첩놈을 잡구 국기훈장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훈장을 다 타구.》

《아니, 그뿐인줄 아세요. 평양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다니는 큰형님은 졸업을 앞두고 학생으로서 학위를 받았대요.》

《뭐, 그게 정말이냐? 영수가 학위를 받았다구?》

《그래요. 아버지의 자랑은 또 얼마나 크다구요. 아버지네 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버진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몰라요.》

《정말 너희 집에는 경사에 경사가 겹쳤구나.》

《삼촌, 또 있어요. 막내동생 순희가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 참가해서 독창에서 1등을 했어요.》

《순희가 독창에서 1등을 했단 말이지.》

《삼촌, 한해에 할 일을 넉달동안에 해내서 신문에 크게 난 직포공어머니의 자랑은 그만 말하지 못할번 했구만요.》

《정말 너희 집의 경사를 생각하니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은정에 목이 메는구나.》

《삼촌, 전 공부를 더 잘해서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참된 학생이 될래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영철아, 다음번 일요일에는 너희 집에 가겠다.》

《삼촌, 일요일날 기다리겠어요. 그럼 전화를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냐. 잘 있거라.》

전화를 끝내자 영철이는 송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체신소를 나섰습니다.

△ 전화할 때의 말

전화는 서로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하게 됩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에는 먼저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정중히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전화는 상대편이 말을 똑똑히 알아들을수 있게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도 짧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말하거나 지나치게 빨리 말하여도 안됩니다.

전화를 한 다음에는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송수화기를 놓아야 합니다.

글짓기교재

14. 그리운 정훈동무에게

정훈아, 그동안 잘 있었니?

네가 보낸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다.

우리들도 모두 건강한 몸으로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잘해나가고 있다.

보고싶은 정훈아, 네가 이사간지도 벌써 1년이 거의 되여오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너를 언제나 잊지 않고있단다.

너의 웃음어린 얼굴, 한창 덤빌 때면 모두를 벙벙하게 만들던 쾌활한 모습이 막 눈앞에 보이는듯싶다. 우리 학교 다정한 토끼소조원들인 영철이, 광혁이, 성남이들이 모이면 늘 네 소리를 하군한다.

어제도 우리는 며칠전에 네가 보낸 편지를 보며 얼마나 웃었는

지 몰라.

그동안 토끼들이 잘 있었는가 하는 첫 인사말을 놓고 말이야. 너는 정말 토끼밖에 몰라.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지내던 잊을수 없는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어미토끼를 잃은 일곱마리의 새끼토끼를 살려보겠다고 염소젖을 받아먹이며 애지중지 키우던 일이며 하루도 빠짐없이 토끼에 대한 관찰일기를 쓰며 토끼생육과정을 연구하던 일 그리고 앓는 새끼토끼 한마리를 놓고 밤을 꼬박 밝히던 일… 정말 잊을수가 없구나.

참, 너는 그 말썽이가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었지?

그 토끼는 아주 튼튼해졌어. 이번에도 10마리의 새끼를 또 낳았단다. 그게 어떤 토끼냐.

네가 보름동안 야영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온 날 밤에 있은 일을 아직 기억하겠지?

여느때도 입이 밭아 잘 먹지도 잘 놀지도 않아 우리 속을 태우던 말썽이가 종내 숨을 할딱거리며 죽어가게 되여 난 이젠 할수 없다고 단념했댔어.

그까짓 한마리의 새끼토끼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말이야.

그날 밤 토끼우리로 뛰여들어온 너는 그 말썽이를 가슴에 안고 어떻게 말했니?

《너도 토끼소조원이야, 앉아서 토끼가 죽기를 기다려?》

아, 지금도 그 말이 나의 가슴을 세차게 치누나.

가장 가깝게 지내던 너에게서 그런 가슴아픈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

참, 그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몹시 퍼붓던 음산한 날이였지.

토끼가 비에 맞을세라 비옷에 감싸안고 수의사아저씨를 찾아 뛰여갈 때 내 마음이 어떠했댔는지 아니?

나는 사실 그때 너에게 말은 안했지만 속으로 울었어.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목장치료실문을 열고 뛰여든 너의 모습을 보고 수의사아저씨는 또 얼마나 놀라와했니.

네가 이사간 다음에도 수의사아저씨는 종종 말썽이를 찾아와 보살펴주며 네 소리를 한단다.

정훈아, 우린 이번에 말썽이의 이름을 정성이라고 고쳐 지었어. 네 정성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야.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에 2만마리이상의 토끼를 길러낼

목표를 내세우고 토끼기르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어.
너의 학교에서도 올해에 2만마리의 토끼를 길러낸다지.
정훈아, 우리 서로 약속하자.
나는 토끼소조원으로 학교토끼도 잘 관리하면서 집에서 150마리의 토끼를 길러낼 결심이야.
정훈이, 우리 더 많은 토끼를 길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자.
앞으로 토끼를 기르는데서 얻은 좋은 경험들이 있으면 편지로 자주 알려주길 바란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어.
너의 학습과 소년단생활 그리고 토끼기르기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안녕히.

××××년 3월 20일
김영철 씀

△ 편 지

편지란 시간이나 거리상 관계로 직접 말할수 없는 대상에게 자기 소식과 요구를 적어보내는 글입니다.
편지에는 쓰는 내용에 따라 문안편지, 위문편지, 축하편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는 먼저 상대편을 부르는 말을 쓰고 지내는 형편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묻고싶은 내용, 전하려고 하는 소식, 부탁하고싶은 말을 씁니다.
편지의 마감에는 이만 그친다는 말과 상대편의 사업성과와 건강을 바란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날자와 이름을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서 중요한것은 내용을 꾸미지 말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진실하게 쓰는것입니다.
편지는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례절을 잘 지켜 써야 합니다.
편지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쓰되 짧으면서도 보기 쉽게 정성들여 써야 합니다.

15. 어느날 저녁

고달픈 하루해 저물어가고
저녁연기 푸실푸실 피여오르면
산새들도 포르르 잠자리 찾아들고
숨박곡질하느라고 복새판을 피우는
아이들을 찾는 소리 온 동네 가득

그러나 대원수님께서는 안 돌아오셨네
아침에 책을 끼고 집을 나가시여
어둡도록 안 오셔요 저물도록 안 오셔요

《저녁때가 되여도 어데 가서 안 오나?》
더럭 근심스런 대원수님의 삼촌어머님
술래잡기하는데도 찾아보시고
뜀박질터에도 찾아보셔요
반디불도 환히 초롱불 켜들고
대원수님 찾아서 이리저리 날아요

물안개 피여오르는 훈훈한 저녁
싱그런 바람 불어오는 강기슭에서
풀냄새 맡으시며 벌레울음소리 들으시며
공부하고계셨어요 대원수님께서는
읽을수록 절절한 우리 말, 우리 글
깊고깊은 그 뜻을 깨치시고계셨어요

모르고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나
빼앗긴 우리 나라, 우리 글, 우리 살림
모르고서야 어떻게 모조리 찾나

동네애들 놀음에만 정신 팔 때도
나라 찾으실 큰뜻으로 글 익히시는 대원수님

뒤로 바싹 다가가도 알지 못하시고
글에만 정신 쏟으시는 대원수님을 보시며
삼촌어머님도 대견하여 목이 메시고
반디불도 초롱불을 밝혀줬어요

어둔 밤을 모르시는 대원수님의 학습
구절마다 힘이 솟는 랑랑한 글소리
대동강도 따라외며 주알주알 흘렀어요

(민병준)

읽기교재

16. 담 요

3년전 내가 집 떠나던 해 겨울에 나는 어떤 깊숙한 큰절에 있었다. 홑고의적삼을 입고 이 절 큰 방구석에서 우두커니 쭝그리고 지낼 때에 고향 계신 늙은 어머니가 보내주신것이 지금 이 글제목으로 붙인 《담요》였다.

그 담요가 오늘날까지 나를 싸주고 덮어주고 받쳐주고 하여 한시도 내 몸을 떠나지 않고있다. 나는 때때로 이 담요를 만질 때마다 느끼는것이 있으니 그것이 즉 이 글에 나타나는 감정이다.

집 떠나던 전해였다.

나는 국경 어떤 정거장에서 일하고있었다. 그때는 그 일이 괴로왔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다운 일이였을는지 모른다. 어머니와 안해가 있었고 어린 딸애까지 있어서 헐으나 성하나 철 찾아 깨끗이 빨아주는 옷을 입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자리에서 껄떡거리다가는 내 집에서 지은 밥에 배를 불리고 편안히 쉬

던 그때가 바람에 불리는 갈꽃같은 오늘에 비기면 얼마나 행복일가 하고 생각해보는 때도 많다. 더구나 어린 딸애가 아침저녁 일자리에 따라와서 방긋방긋 웃어주던 기억은 지금도 새롭다.

그러나 그때에도 풍족한 생활은 못되였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생활이였고 그리되고보니 하루만 병으로 쉬게 되면 그 하루 량식값은 빚이 되였다. 따라서 잘 입지도 못하였다. 안해는 어디 나가려면 딸애 싸업을 포대기조차 변변한것이 없었다.

그때 우리와 같이 이웃에 세집을 얻어가지고있는 K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정거장에서 일하고있었는데 그 부인은 우리 집에 늘 놀러 왔다. 놀러 오는 때마다 그때 세살 나는 어린 아들을 붉은 담요에 싸업고 왔다.

K의 부인이 오면 우리 집은 어린애싸움과 울음판이 벌어지군 하였다. 그것은 내 딸애와 K의 아들이 싸우고 우는것이다. 그 싸움과 울음의 실머리는 K의 아들을 싸업고 온 붉은 담요로부터 풀리게 되였다.

K의 부인이 와서 그 담요를 끄르고 어린것을 내려놓으면 내 딸애는 어미무릎에서 젖을 먹다가 텀벅텀벅 달아가서 그 붉은 담요를 끄집어오면서《엄마 곱다！》하고 방긋방긋 웃었다. 그 웃음은 이 담요가 부럽다, 가지고싶다, 나도 하나 사다고 하는듯 하였다.

그러면 K의 아들은《이놈아, 남의것을 왜 가져가니？》하는듯이 내 딸에게 찡기고 달려들어서 빼앗았다. 그러나 내 딸애는 순순히 뺏기지 않고 이를 꼭 악물고 힘써서 잡아당긴다.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다가는 나중에 서로 때리고 싸우게 된다.

처음 어린것들이 밀고 당기게 되면 어른들은 서로 마주보고 웃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 안해, 나— 이 세 사람의 웃음속에는 알수 없는 어색한 빛이 흘러서 극히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였다. K의 안해만이 상글상글 재미있게 웃었다.

담요를 서로 잡아당길 때에 내 딸애가 끌리게 되면 얼굴이 빨개서 어른들을 보면서 비죽비죽 울려울려 하는것은 후원을 청하는것이였다. 이것은 K의 아들도 끌리게 되면 하는 표정이였다.

그러다가 서로 어우러져서 싸우게 되면 어른들 낯에 웃음이 스러진다.

《이 계집애, 남의 애를 왜 때리느냐.》

K의 안해는 낯빛이 파래서 아들과 담요를 끄집어다가 싸업는다. 그러면 내 안해도 낯빛이 푸르러서 《우지 말아, 우지 말아. 이담에 아버지가 담요를 사다주신다.》 하고 내 딸애를 끄집어다가 젖을 물린다. 딸애의 울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아니, 응흥!》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K의 안해가 어린것을 싸업은 담요를 가리키면서 섧게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되면 나는 차마 그것을 볼수 없었다. 같은 처지에 있건마는 K의 안해와 아들의 낯에는 우월감이 흐르는것 같고 우리는 그가운데 접질리는것 같은것도 불쾌하지만 어린것이 서너살 나도록 포대기 하나 변변히 못 지어주는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못생긴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린것이 말은 할줄 모르고 그 담요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는양은 차마 눈으로 볼수 없었다.

그 며칠뒤에 나는 일삯전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니 안해가 수건으로 머리를 싼 딸애를 안고 앉아서 쪽쪽 울고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아무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나는 웬일이냐고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딸애 이름)가 머리가 터졌다.》

어머니는 겨우 목구멍으로 우러나오는 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네? 머리가 터지다니요?》

《K의 아들애가 담요를 만졌다고 인두로 때려…》

이번은 안해가 울면서 말하였다.

《응? 인두로…》

나는 나로도 알수 없는 힘에 문밖으로 나갔다. 어머니가 쫓아 나오시면서 《애, 철없는 어린것들 싸움인데 그것을 타가지고 어른싸움이 될라…》 하며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만 오도가도 못하고 가만히 서있었다. 그때 나는 분한지 슬픈지 그저 멍한것이 얼빠진 사람 같았다. 모든 감정이 점점 갈앉고 비로소 내 의식에 돌아왔을 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나는 그길로 거리에 달려가서 붉은 줄, 푸른 줄 간 담요를 4원 50전이나 주고 샀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달려가 샀던지. 사가지고 돌아설 때 량식 살 돈 없어진것을 생각하고 이마를 찡기는 동시에 《흥》 하고 랭소도 하였다.

내가 지금 깔고앉아서 이 글 쓰는 이 담요는 그래서 산것이였다.

담요를 사들고 집에 들어서니 어미무릎에 앉아서 《엄마 아

파！ 여기 아파！》 하고 머리를 가리키면서 울던 딸애는 허둥지둥 와서 담요를 끌어안았다.

《엄마, 해해！ 엄마 곱다！》하면서 뚝뚝 뛸듯이 좋아라고 웃는다. 그것을 보고 웃는 우리 셋—어머니, 안해, 나는 눈물을 씻으면서 서로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 그때 찢기던 그 가슴！ 지금도 그렇게 찢겼다.

그뒤에 얼마 안되여 몹쓸 비바람이 우리 집을 치였다. 우리는 서로 동서에 갈리게 되였다. 어머니는 내 딸애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시고 안해는 평안도로 가고 나는 양주 어떤 절로 들어갔다. 내가 종적을 감추고 다니다가 절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편지하였더니

《추운 겨울 어찌 지내느냐. 담요를 보내니 덮고 자거라. ××(딸애)가 담요를 밤낮 이쁘다고 남은 만지게도 못하더니 아버지께 보낸다고 하니 〈할머니, 이거 아버지 덮니？〉하면서 소리없이 내여놓는다. 어서 뜻을 이루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편지와 같이 담요를 보내주시였다. 그것이 벌써 3년전 일이다. 그새에 담요의 주인공인 내 딸애는 땅속에 묻힌 혼이 되고 늙은 어머니는 의지가지없이 뒤쪽 나라 눈속에서 헤매시고 이 몸이 또한 푸른 생각을 안고 끝없이 흐르니 언제나 어머니슬하에 뵈일가.

봄뜻이 깊은 이때에 유래가 깊은 담요를 손수 접어 깔고앉으니 무량한 감개가 가슴에 북받치여서 풀 길이 망연하다.

(최서해)

〔속 담〕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헤쳐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말.

○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일을 벌려만 놓지 말고 한곳에 힘을 넣어 끝까지 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말.

글짓기교재

17. 길이 빛나라 영광의 땅 포평이여

봄빛이 짙어가는 지난 5월, 우리는 영광의 땅 포평을 찾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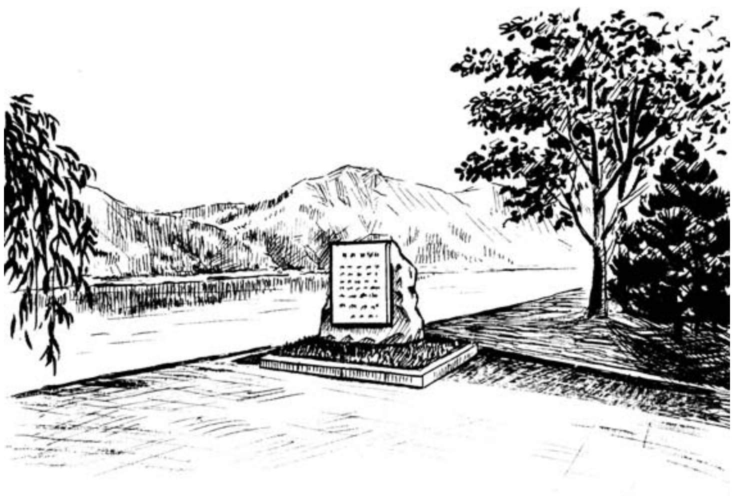
머루가 많다고 포평이라 불러온 이곳의 자연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산과 강이지만 조선혁명의 새 아침이 밝아온 력사의 땅을 견학한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대오앞에 붉은기를 날리며 **김성주**학생소년궁전과 김형직인민병원, 학교와 살림집들로 즐비한 포평거리를 지나 포평나루터로 향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부모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여 넘나드신 나루터,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로 이어져 빛나는 나루터, 그 얼마나 우리 가슴 설레게 하던 곳입니까.

포평거리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은 나루터로, 나루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포평나루터다! —》



누군가가 소리치자 우리는《야!》하고 나는듯이 달려갔습니다.

포평나루터는 바다오거우(팔도구)가 마주 바라보이는 압록강기슭에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우리모두 옷깃을 여미고 압록강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서있느라니 하늬바람에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나루터에 서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숭고한 영상이 우렷이 안겨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4(1925)년 2월 3일 저녁 조국산천을 떠나시는 끝없는 설음과 비분을 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였던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여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압록강만 건느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조선을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려는 불타는 그 맹세!

우리의 가슴가슴에는 출렁이는 물결마냥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맹세의 구절구절이 선히 안겨왔습니다.

우리는 강사선생님을 따라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포평례배당으로 향하였습니다.

나루터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자리잡은 포평례배당, 돌기와를 이고 앉은 이 단층집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종교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동무들을 일깨워주시고 조선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감동적인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곳입니다.

포평례배당은 또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바다오거우에서 자주 건너오시여 나라안의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신 유서깊은 곳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혁명가들이 선생님의 뜻을 안고 서울로, 부산으로, 나라의 방방곡곡에로 떠나갔던것입니다.

우리는 포평례배당의 오른쪽에 나란히 자리잡은 ㄴ자모양의 단층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집이 바로 강반석어머님께서 바다오거우에서 자주 건너오시여 야학을 지도하시며 녀성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신 유서깊은 함경도집입니다.

숭엄한 마음을 안고 이 집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말, 우리 글을

가르치시며 억눌리고 짓밟힌 이 나라 녀성들의 어두운 눈을 틔워주신 강반석어머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가슴뜨겁게 넘쳐났습니다.

이어 우리는 씨름터와 국수집, 헌병보조원집 등을 차례로 돌아보고 우편물위탁소로 향하였습니다.

이 집은 그때 포평우편물위탁소이면서 가게방으로 쓰이던 김로인의 집이였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나라안의 혁명조직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이 위탁소를 비밀련락장소로 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바다오거우에서 이 집으로 자주 오시여 아버님께서 주신 비밀편지를 부치시였고 아버님께로 오는 편지들을 찾아가군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강사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걸으신 자욱자욱을 더듬으며 한없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였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가슴에 안고 《압강려관》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압강려관》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 싸우신 리보익할머님의 억센 기상과 강의한 의지를 말해주듯 오늘도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서있었습니다.

포평에는 또한 경찰관주재소, 덕판밑집, 샘물터집자리, 그물터, 포평회의장소, 룡바위집 등 혁명사적들이 정가롭게 자리잡고있어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포평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이 깃든 곳이며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리라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불타는 맹세가 어리여 빛나는 땅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못 잊어서인가 포평땅에 노을이 비껴옵니다. 붉게 타는 노을인양 우리의 가슴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실할 굳은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길이 빛나라 영광의 땅 포평이여!

노을비낀 압록강도 포평을 떠나는 우리의 이 마음 담아싣고 물결쳐 흘렀습니다.

읽기교재

18. 사랑의 그네

풀벌레 울어예는 밝은 달밤에
느티나무아래서 그네를 뛰네
김정숙어머님 밀어주시면
하늘가에 아이들은 날아오르네

지하공작 바쁘신 그 길에서도
바구니에 산나물 채워주시더니
이밤엔 피곤도 다 잊으시고
가난한 집 아이들 그네 태워주시네

꽃분이도 올라라
어서 밀어주마
온갖 설음 다 잊고
하늘높이 날아라

어머님 힘껏 그네를 미시니
구름우에 둥둥
웃는 얼굴 둥둥
배고파 눈물짓던 그 얼굴에
방실방실 웃음꽃 활짝 피여나네

부엌데기 쌍가매
너도 날아라
동트는 새날을
내다보려마

깊어가는 야학의 밤 등잔불아래
손잡고 한자한자 글 배워준 아이

어둠을 가시고 밝아진 그 눈
하늘끝에 반짝
샛별눈이 반짝

높이높이 날아라
사랑의 그네야
흰구름도 휘—휘—
발아래 흘러가고
둥근달도 둥—둥—
그네따라 함께 나네

아, 어머님의 뜨거운 손길에 받들려
조국의 밤하늘에 훨훨 나는 아이들
백두산 장수별이 반겨맞았네
사랑어린 빛발을 뿌려주었네

(림금단)

△ 시를 잘 읊자면

시를 잘 읊자면 첫째로, 어떤 시인가를 알고 시에 담겨진 사상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시를 쓴 사람의 사상감정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둘째로, 시의 사상감정이 잘 드러나게 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발음을 똑똑히 하고 단어의 소리마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끊기와 잇기를 바로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시읊기에서 높낮이를 잘 나타내여 음악적흐름을 잘 살려야 합니다.

넷째로, 시읊기에서 속도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시읊기속도는 보통 1분간 150～170자정도입니다.

다섯째로, 시읊기에서 맑은소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감정정서에 맞는 여러가지 소리의 빛갈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읽기교재

19. 신기한 종이장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한번은 볼 일이 있어 함흥으로 나가신적이 있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함흥에서 제일 크고 으리으리한 왜놈의 려관에서 보름동안이나 류숙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려관을 떠나실 때 려관주인을 불러 명함한장을 주셨는데 그 명함장을 받아든 주인은 너무 놀라서 장군님께 깊숙이 절을 하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온 천하에 명성이 높으신 위대한 령장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로 자기 려관에서 보름동안이나 류숙하셨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존함이 씌여진 명함장을 내놓고 태연하게 나서시는 장군님의 근엄한 기상에 주인은 그만 혼이 나갔던것이다. 려관주인은 한동안 망두석처럼 뻣뻣해진채로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나가신지 얼마후에야 정신이 좀 든 주인은 허겁지겁 경찰서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뭣이?》

화닥닥 놀란 경찰놈들은 각지 경찰서에 전화를 건다 파발말을 띄운다 하며 눈이 뒤집혀 돌아갔다.

그러니 온 함경도경찰이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소동을 일으키며 다 떨쳐나섰다.

하여튼 함흥에서부터 삼수, 갑산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산이고 들이고 할것없이 경찰놈들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덮였다.

놈들이 이렇게 정신이 빠져서 소동을 피우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후치령을 넘어 풍산읍(지금의 김형권읍)안의 리발소에서 리발까지 척 하고 나오시여 북으로 뻗은 신작로를 유유히 걸어가시였다.

그제야 경찰놈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알아보고 바싹 뒤를 따르는데 장군님께서는 뒤도 한번 돌아보시지 않고 큰길로 훨훨 걸어가

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걸보기에는 천천히 걸으시는것 같은데 실상은 어찌도 빨리 가시는지 놈들이 기를 쓰고 따라가도 도저히 따라갈수가 없었다.

(하, **김일성**장군이 축지법을 쓴다더니 이것이 바로 축지법이 아니야?!)

놈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숨이 턱에 닿아 죽기내기로 뛰였다. 그래 어떤 놈은 땀으로 미역을 감아서 물에 빠진 생쥐모양이 되고 어떤 놈은 너무 급해 바지에 오줌을 싸고 어떤 놈은 혀를 석자나 빼물고 늘어졌다.

그래도 놈들은 연방 엇바꾸어가며 헐레벌떡 위대한 장군님의 뒤를 쫓아갔는데 어언 압록강에 이르렀다.

(이제야 됐다!)

놈들은 가쁜숨을 몰아쉬며 환성을 올렸다.

(앞에는 넓은 강물이 출렁이는데 이미 이곳 주재소에 련락하여 강에 있는 배를 모조리 치웠으니 **김일성**장군이 아무리 축지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큰 강을 어떻게 맨몸으로 건너가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를 도운것이다.)

경찰놈들은 제법 얼굴에 웃음까지 지으며 강가로 바싹바싹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가에 태연히 앉으시여 종이를 펼쳐놓고 조선지도를 그리고계시지 않는가!

경찰놈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홀로 앉아계시는 장군님을 보자 어쩐지 겁이 나서 감히 접어들지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눈만 멀뚱거렸다.

이윽하여 정신빠진 상관놈이 어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경찰놈들은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이장을 압록강물우에 척 띄우고 그우에 선뜻 올라서시는것이였다. 그러자 종이장이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눈깜빡할사이에 강건너기슭에 가닿았다.

경찰놈들은 너무나 놀라서 입만 쩍 벌리고있다가 뒤늦게야 허겁지겁 배를 얻어타고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방금까지 바람 한점 없고 호수처럼 잔잔하던 강 한복판에 파도가 길길이 치솟는것이였다.

벌써 강 저쪽 바위우에 올라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이장을 돌돌 말아 품에 간수하고계시는것이였다.

갑자기 길길이 치솟는 파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종이장을 건사하시는 바람에 일어나는 멀기였던것이다.

하여튼 그 파도가 어찌나 세찼던지 위대한 장군님의 뒤를 쫓던 경찰놈들의 배가 몽땅 뒤집혀서 놈들이 모두 압록강 고기밥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때 강가에 있던 일본경찰관주재소는 물속에 잠겨버리고말았다.

〔속 담〕

○ 첫술에 배 부를가.
무슨 일이나 첫시작부터 만족하게 되기가 힘들므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

○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쓸데없는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요긴한 쓸 말은 적다는것을 이르는 말.

20. 성철이처럼

나는 장편소설《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은 감동속에 읽고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소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싸워나갈때 그 어떤 어려운 고비도 능히 뚫고나갈수 있다는 참뜻을 깨우쳐주고있습니다.

어느 여름날《금강》호를 타고 알섬에 놀러 갔던 긴여울마을의 열다섯 소년은 돌아오다가 태풍을 만나 조난당하게 되여 무인도 백곰섬에 오릅니다.

소년들은 구조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림시로 살아갈 집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도중에 그만 허물어집니다. 그러자 무한이는 집을 짓느라고 고생하느니보다 동굴을 찾아서 살겠다고 하면서 식량까지 나눈 다음 네 동무를 데리고 떠나가버립니다.

열명밖에 남지 않은 성철이네는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집을 짓고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잡아 겨울식량과 옷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새들을 잡아다 편지를 써서 발에 매달아 날려보내기도 하고 덕선봉에 봉화대를 만들고 불을 지펴올리면서 구조선이 나타나기를 안타깝게 기다립니다.

한편 동굴로 갈라져나간 무한이네는 얻어낸 무전기만 믿으면서 겨울나이준비도 잘하지 않습니다.

무한이네는 겨울이 되자 먹을것이 다 떨어져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산에 갔던 무한이가 큰 백곰을 만나 위험에 처하게 되였을 때 이것을 발견한 성철이는 목숨을 내대고 무한이를 죽음에서 구원해줍니다.

성철이의 행동에 감동된 무한이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성철이네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선이 나타나지 않아 고향마을로 돌아갈수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한 무전기, 해골, 망원경과 신짝, 천쪼각… 이

모든것은 그전에 이 백곰섬에 왔던 사람들은 살아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동무들은 구조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무인도에서 자기들도 다 죽게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절망에 빠집니다.

대장인 성철이의 마음도 서글프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 성철이는 모두가 머리를 짜내고 힘을 합치면 어려운 고비를 넘길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배를 만들자. 몇달이 걸려도 좋고 몇해가 걸려도 좋다. 우리의 손으로 기어이 배를 무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열다섯 소년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끝내 배를 만들어가지고 열달만에 고향마을 긴여울로 돌아옵니다.



성철이가 결심한대로 자기들의 손으로 배를 뭇지 않고 무한이네처럼 구조선이 나타나 구원해주기만을 기다렸다면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성철이를 비롯한 소년들의 기특한 생각과 행동은 우리들에게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굳게 믿고 싸워나간다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줍니다.

나는 이 장편소설을 읽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나도 성철이처럼 살자. 언제나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배우며 생활해나가자.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로 자라나리라.)

읽기교재

21.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 하는
새 나라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냐

창공에 붉은 해 찬란한 그 빛
창공에 밝은 달 명랑한 그 빛
바다에는 별들이 꼬리쳐놀고
푸른 들엔 양떼들이 무리져논다

동무들 어린 군인 노래부르자
혁명주권 굳게 잡은 자유의 터에
영원한 자유평등 모두 찾으려
온 세상 어린이여 다들 오너라

22. 《포사격을 나에게로!》

1953년 6월 2일.

인민군대아저씨들은 미제원쑤놈들을 족쳐대고 351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포병부대앞에는 보병들의 다음전투를 계속 도와주어야 할 임무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월비산에 자리잡은 련포군장감시소에서는 351고지로 게바라오르는 적의 움직임을 살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리하여 정찰참모아저씨와 상급무전수아저씨가 351고지의 전방감시로 나가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적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모아저씨와 상급무전수아저씨는 적들의 움직임을 손금처럼 볼수 있는 고지앞코숭이에까지 내려가 참호를 팠습니다.

아직 어둠속에 잠겨있는 적진지에서는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먼동이 훤히 텄습니다. 원쑤놈들은 이리떼처럼 덤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쑤놈들을 노려보는 그들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이글거렸습니다.

참모아저씨가 재빨리 사격제원을 구하자 무전수아저씨는 련포군장감시소를 찾았습니다. 이윽고 거마리같이 달라붙는 적들의 한복판에 우리의 포탄이 련이어 떨어졌습니다. 우리 포병부대의 포탄에 얻어맞은 적들의 비명소리가 골안을 뒤덮었습니다.

적들은 된매를 맞고서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발악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적들은 미친듯이 포탄을 쏘아댔습니다. 고지는 온통 뒤집히고 파헤쳐졌습니다.

참호둘레에 적포탄들이 날아와 떨어지는 순간 무전수아저씨는 자기 몸으로 참모아저씨를 덮었습니다. 참모아저씨는 《내 걱정은 마오. 오히려 동무가 위험하오.》라고 하면서 참호바닥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참모아저씨는 한치한치 다가드는 적들을 쏘아보면서 《소나무 하나 쐇!》 하고 구령을 쳤습니다. 우리 포탄은 마치 눈이 달린것처럼 적들의 한복판으로 련이어 날아가 터졌습니다.

악착한 적들은 주검을 더미로 쌓으면서도 검질기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느새 적의 한 무리가 감시소 앞코숭이에 달라붙었습니다.



순간 참모아저씨는 재빨리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다시 수류탄을 던지려고 몸을 솟구는 순간 적들의 수류탄이 날아와 터지면서 참모아저씨는 그만 심한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적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아래도리가 땅에 묻힌채 정신을 잃었던 무전수아저씨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앙칼진 총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적들은 벌써 턱밑까지 기여들었습니다. 무전수아저씨는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일어설수가 없었습니다.

무전수아저씨는 이를 악물고 두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가까스로

일어났습니다.

《이놈들아, 복수의 수류탄을 받아라!》

무전수아저씨는 수류탄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적들은 무리주검을 남기고 골짜기아래로 쫓겨내려갔습니다.

무전수아저씨는 얼른 정찰참모아저씨에게로 기여가 그를 그러안고 안타까이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서 참모아저씨는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순간 참모아저씨는 자기의 전투임무가 생각났습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참모아저씨는 왼손으로 사격제원표의 한곳을 짚으면서 《소나무 둘!》 하고 가까스로 말하였습니다.

무전수아저씨는 참모아저씨가 부른 사격제원을 련포군장감시소에 알렸습니다. 다시 우리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무리죽음을 당하고있는 원쑤놈들의 꼬락서니를 내려다보는 참모아저씨의 얼굴에는 끝없는 기쁨이 어려있었습니다.

참모아저씨는 무전수아저씨의 손을 꼭 잡으면서 《무전수동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전사답게 잘 싸워주오. 이 고지를 부탁하오.…》라는 말을 남기고 끝내 쓰러지고말았습니다.

참모아저씨를 그러안은 무전수아저씨의 두눈에는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무전수아저씨는 고지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적들은 또다시 기여오르고있었습니다.

무전수아저씨는 정찰참모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던지려던 수류탄을 원쑤놈들의 한복판에 던졌습니다. 《꽝—》 수류탄 터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원쑤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리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수류탄을 던지려고 몸을 솟구던 무전수아저씨는 들었던 수류탄을 전호턱에 도로 놓았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가장 값있게 써야한다고 생각하였기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워서는 고지를 지켜낼수 없다. 적들은 꼬리를 물고 덤벼드는데 한두개의 수류탄으로 어떻게 다 잡는단 말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주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한놈의 적도 고지우에 올려놓을수 없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인민군전사다. 어떻게 할것인가?… 포사격을 여기로, 바로 나에게로 부르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참모아저씨의 가슴우에 놓여있는 포사격제원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송수화기를 들고 《소나무 셋!》

하고 불렀습니다.

…쌍안경을 눈에 대고 포연이 자욱히 덮인 고지를 지켜보고있던 련포군장아저씨의 얼굴은 아주 엄숙해졌습니다. 고지에서는 포사격을 부르는 전파가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소나무 셋 쐇! 쐇!》

뒤미처 수화기에서는 《 고지가 위험하다! 포사격을 나에게로!》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포사격을 자기에게로 부르는 무전수! 그의 영웅성과 자기희생정신은 감시소의 모든 전투원들의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련포군장아저씨는 그 짧은 말속에서 고지의 급한 형편과 무전수의 불타는 충실성을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련포군장아저씨는 그가 요구하는 포사격구령을 내리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을 고지우에 그대로 두고 어떻게 포사격을 한단 말인가!)

가슴을 저며내는듯 한 아픔을 느끼면서 망설이고있을 때 무전수의 재촉하는 웨침소리가 수화기에서 또 흘러나왔습니다.

련포군장아저씨는 드디여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전사는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지켜내려고 한다. 그의 소원대로 고지에 포사격을 하자. 그렇지만 그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련포군장아저씨는 직접 무전기의 송수화기를 틀어잡고 말하였습니다.

《곧 쏜다. 은페부에 몸을 숨기고 보고해야 포사격을 하겠다. 알겠는가?》

《…》

잠시후 수화기에서는 은페하였다는 보고가 날아왔습니다. 련포군장아저씨는 그제야 포진지에로 통하는 송수화기를 들고 사격제원이 정확함을 다시 보고받더니 《소나무 셋— 쐇!》 하고 구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련포군의 포들은 노한 사자마냥 불을 토하였습니다. 불기둥은 적들이 몰켜있는 산비탈이며 고지의 앞코숭이에서 연방 일어났습니다.

《명중! 쐇! 쐇!》

무전수아저씨는 련포군장아저씨의 명령대로 은폐호에서 포탄이 터지는것을 눈여겨보고있었던것입니다.

《적들이 도망친다. 〈소나무 둘〉로 사격을 옮기라!》라는 부름소리가 수화기에서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련포군장아저씨는 무전수아저씨가 불러주는 사격제원대로 원쑤놈들에게 죽음을 주는 사격구령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적들은 수많은 주검을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포연이 가시기 시작한 351고지는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한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자랑하며 거연히 솟아있었습니다.

〔속 담〕

○ 산돼지 잡으려다 집돼지 잃는다.
보잘것 없는것을 위하다가 도리여 큰것을 놓친다는 뜻으로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는것을 이르는 말.

○ 세살적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① 어렸을 때의 버릇은 늙어서도 버리기 힘들다는 말.
② 어렸을 때부터 나쁜 버릇에 습관되지 않도록 교양을 잘해야 한다는 말.

읽기교재

23. 다시 학교로 가는 길

때: 1990년대
곳: 남녘땅의 어느 바다가마을

나오는 사람들

성도— 중학교 1학년생
분이— 그의 누이동생

어머니— 그의 어머니
종욱— 성도의 동무
동네아이들, 마을사람들
요한— 성도와 한학급아이(황구대의 아들놈)
황구대— 면장이며 지주
그밖에 미제승냥이놈 여럿이 나온다.

무대
오른편에 오막살이 한채가 간신히 서있다. 성도네 집이다.
부엌쪽에 잇닿아 작은 닭장이 있다.
뒤울안에 몇알의 감이 달린 늙은 감나무 한그루, 그뒤로 산발이 보인다.
왼쪽으로 마을로 내려가는 나지막한 언덕, 그 멀리로 바다가 보인다.
어느 가을날 아침—
△ 막이 열리면
분이 닭모이를 주다 말고 멀리 바다쪽을 바라보고 섰다.
△ 돌멩이가 휭 날아온다.
분이: (깜짝 놀라며) 누구냐? 누가 돌멩이질이냐?
△ 미국식옷차림의 요한이 감나무를 보며 나온다.
분이: (쏘아보다가) 왜 돌을 던져? 돼지같은게.
요한: 무엇이?! (때리려고 달려든다.)
분이: 나만 때려봐. 울 오빠가 널 그냥 둘줄 알아. (눈 깜빡 않고 쏘아본다.)
요한: 너의 오빠? (분이네 집을 가리키며) 이런 가난뱅이가?… 월사금도 못 냈지, 환영회비도 못 냈지, 요즈음은 학교두 나오지 못하구…
분이: (놀라며) 울 오빠가 학교를 못 가?!
△ 요한 비웃는듯 입을 삐죽 내밀며 나간다.
분이 생각에 잠겨 서있다.
어머니 감이 든 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어머니: (분이를 보고) 닭모이는 줬냐?
분이: (대답이 없다.)
어머니: 닭이 없어진게 아니냐?
분이: (와락 어머니에게 안기며) 어머니!
어머니: (혼자 짐작으로) 에구, 저걸 어쩌니. 미국놈들의 총에 맞

아 상처를 입은 너의 아버지 몸을 추세우려구 네 삼촌이 가져온 닭이 아니냐?… 거기서도 살림살이가 어려워 닭 기르기가 조련치 않다던데…

분이: 어머니! 그런게 아니야요.… 오빠 월사금을 못 내서… 이젠 학교에 들여놓지두 않는대요. 《돼지》가 그래요.

어머니: 아—니, 그게 정말이냐?… (긴 한숨) 월사금이 원쑤로구나.…

△ 어머니 급히 일어나 뒤울안으로 간다.

분이: (따라서며) 어머니, 내가 감을 씻을래요.

△ 분이 어머니에게서 바구니를 받아가지고 뒤울안으로 같이 간다.
조이삭을 든 성도, 종욱 언덕길로 올라온다.

종욱: 성도야, 너 내가 준 책 다 읽었니?

성도:《해발》말이지. 단숨에 읽었어.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야!

종욱: 나도 그 책에 홀딱 반했댔어.

성도: 민족의 태양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이북의 사회주의제도는 얼마나 좋은 제도이냐!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사랑속에서 붉게붉게 피여나는 이북의 아이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구. (사이를 두고) 여기서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북에선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공부할수 있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지.

종욱: 그리구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철따라 색갈고운 옷을 유치원어린이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주신다지 않니!

성도: 평양의 훌륭한 학생소년궁전과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은 야영소들, 정말 꿈같은 세상이야!

종욱: 성도야,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우리 남녘의 인민들과 아이들을 생각하시며 잠 못 드신대.

성도: 야! 우린 언제 가면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품에 안길수 있을가?!

종욱: 미제승냥이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을 쓸어버려야 해. 그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공부할 길을 열수 없어.

성도: 옳아! (주먹을 불끈 쥐고) 승냥이놈들을 그저!… 우리 아버지도 그놈들한테… 정말… (씨근거린다.)

종욱: 성도야, 우리에겐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북반부가 있어. 그리구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홰불로 삼고 로동자아저씨들과 대학생형님, 누나들이 싸우고있어.

성도: 그러니 종욱아, 우리도 대학생형님들과 함께 용감히 싸우면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품에 빨리 안길수 있겠구나.

종욱: 그럼, 있구말구. 싸우는 길만이 다시 학교로 가는 길이야. 우리모두 힘을 합쳐 미제원쑤놈들을 때려부셔야 해.

성도: (종욱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종욱아, 나도 싸울테야!

종욱: (성도의 손을 마주잡고) 그래 같이 싸우자!

△ 두 소년 희망에 넘치는 얼굴이다.
낮고동소리 울린다.

종욱: 성도, 다시 오겠어.

△ 종욱이 나가고 분이 나온다.
성도 조이삭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온다.

분이: 오빠, 그건 웬거야?

성도: 응, 이거? 주어왔어.

분이: 어디서?

성도: 범바위골 안쪽 마을에 가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메뚜기도 없더구나. 닭모이두 얻기 힘들다. 오늘먹이는 이거면 되겠지?
(조이삭을 내민다.)

분이: 오빠!

성도: 왜?

분이: 오빤 학교에 왜 안 가나?

성도: 선생님이 없다는데두…

분이: 오빤… 난 다 알았어. … 오빠, 메뚜긴 내가 잡아올게 오빤 학교에 가. 응! (애타게) 오빠까지 학교에 못 가면 어떻게 해?

성도: 학교에 가면 뭘 하니. (맥없이) 또 쫓겨날텐데…

△ 동네아이들 달려나온다. 책보들을 쥔채이다.

성도: 무슨 일이냐?

아이 1: 성도야, 우리 학교에 미국놈들이 들어왔어.

성도: 뭐, 미제승냥이놈들이?

아이 2: 기습작전훈련을 한다나!
성도: 그런데 그 원쑤놈들이 학교엔 왜 들어와?
아이 3: 들어온게 아니라 가로타고 빼앗은거야. 지금 한개 중대가 책상, 걸상들을 패서 불을 놓고있어.
성도: (안타깝게) 이 원쑤를 어떻게 하면 갚는단 말이냐!
아이 2: 빨리 저놈들을 쳐부시구 이북같은 좋은 세상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니!…
△ 아이들 제가끔 떠들며 나간다.
성도: 분이야!
분이: 응?
성도: 너 아버지를 쏜 놈을 알만 하니?
분이: 그놈 상판대기에 칼자국이 났어. 놈들이 시위대렬에다 총을 쏘는걸 봤거든.
성도: 어디 보자! (이를 사려문다.)
△ 복수에 어린 그들, 앞을 내다본다.
성도: (좀 누그러져 분이의 두손을 잡아쥐며) 분이야! 넌 날 보구 공부를 하라고 했지!
분이: 그럼, 오빠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일이라면 별일이라도 다 할게. 어머니두 오빠만은 꼭 공부시키겠다구 하셔.
성도: (분이의 손을 힘껏 쥐였다 놓으며) 분이야! 이남땅에선 너나 어머니의 그 정성만으로는 공부할수 없어. 미제놈들이 이남땅을 가로타고앉아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공부를 못해. 세상이 뒤바뀌여야 해.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품에 안겨야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어. 나도 요즘에야 이런걸 깊이 깨달았어.
분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성도: 싸워야 해.
분이: 오빠, 그렇지만 우린 아직 애들이 아니야.
성도: 아이들이라구 못 싸울게 뭐야. 종욱이가 그러는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놈들을 쳐부실 때 아이들도 아동단이라는델 들어가지구 혁명을 했대. 유격대에도 나처럼 어린 대원들이 있었구.
분이: 그래?! (감격해한다.)
△ 아버지의 신음소리

그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부엌에서 어머니 감이 든 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어머니: (성도를 보고) 성도야, 이리 와 앉아라!

△ 성도 어머니앞에 가 앉는다.

어머니: (두손을 쥐여주며 부드럽게) 너 요즘 학교에 못 간다지?

성도: 어머니, 노여워마세요. 하지만…

어머니: 성도야! (억해서 말을 못한다.) 걱정말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내 어떻게든 네 월사금을 마련해보겠다.

성도: 어머니, 이놈의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지성만으로는 제가 학교에 가지 못해요. 설사 한두달 더 공부를 한다쳐도 그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기가 막히는노릇이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구 답답하다구야.

성도: 어머니, 이 땅이 내내 어둡기만 하겠어요. 이 더러운 세상이 망할 날이 꼭 있을거예요. 이북애들처럼 우리도 마음놓구 공부할 때가 꼭 있을거예요.

△ 미제통신병놈 전화줄을 늘이며 나온다.

미제놈: 헤—이, 헤—이. (어머니와 성도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한다.)

△ 어머니에게 다가선 미제놈은 바구니에 담은 감을 보고 히쭉 웃는다.

미제놈: 우리 미국사람 조선사람 위해 고생 많이많이 합니다.

△ 미제놈 바구니를 와락 빼앗는다. 미제장교놈이 뛰여들어온다.

장교놈: (위엄을 빼며) 헤—이, 빨리빨리 늘이시오.

△ 미제통신병놈 바구니를 내동댕이치고 바삐 나간다. 감이 흩어진다.
분이 장교놈을 보고 놀란다.
어머니 흩어진 감을 주어담으려고 한다.

장교놈: (어머니를 밀어내며) 헤—이, 물러나시오. 여긴 사격구역입네다.

△ 꼬꼬댁거리는 닭소리

장교놈: 음? 히히히…

△ 권총을 꺼내여 겨눈다.

성도: 안돼요! 그 닭은 못 쏴요!
(장교놈을 밀친다.)

장교놈: (돌아서서) 음. (권총을 성도에게 겨눈다.)

어머니: (성도를 가로막으며) 이 백정놈들 이게 무슨짓이냐?

장교놈: 미군 닭 쏘는데 무슨 상관입네까?

△ 장교놈 닭을 향해 총질, 닭의 비명소리, 장교놈 죽은 닭을 집어들더니 징그럽게 웃으며 나간다.

분이: (어머니에게 와락 안기며) 어머니! 저놈이야요. 저놈이 아버지를 쏜 놈이야요.

성도, 어머니: 뭐라구?

분이: 이마빼기에 칼자국이 난 놈, 그놈이 틀림없어요.

성도: 응, 저놈이구나. 내가 찾던 놈이 저놈이야. (눈에서 불이 인다.)

△ 종욱 뛰여들어온다.

뒤미처 동네아이들과 마을사람들이 밀려들어온다.

성도: 종욱아, 우리 아버지를 쏜 놈, 우리 학교를 빼앗은 놈, 그 원쑤놈들이 우리 마을에 기여들었다.

분이: (마을사람들에게) 아저씨들! 어머니들! 저놈이 우리 아버지랑 별순이 아버지랑 총으로 쏘고 아버지 몸을 추세우려고 백리밖에서 구해온 닭마저 죽여서 꽁무니에 차고가요. 저 원쑤놈을 어떻게 해요?!

종욱: 여러분! 저 원쑤놈들이 오늘은 여기를 사격구역으로 만들려고 미쳐날뜁니다. 어떻게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마을사람들: 죽일 놈들, 저놈들을 그냥 둬! (웅성거린다. 격분에 찬다.)

△ 요한이 자기 아버지 황구대를 끌고 달려나온다.

요한: 저 봐요. 우리 집에 찾아왔던 중대장, 하모니카를 준 중대장… 아, 참 닭을 잡았네.

황구대: 음— 그 어른이군. 미군어른네들은 닭두 잘 잡지. (성도네 집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그제야 발견하고) 엉? 왜들 이렇게 모여섰는거야? 왜들 섰어 앙?

요한: 히히히… 닭새끼두 잘두 죽었지. 히히히…

성도: (달려나가며 한대 친다.) 이 미제승냥이놈의 개야!

△ 요한 벌렁 넘어지며 잉잉 운다.

황구대: 이놈, 이놈! (성도를 때리려 한다.)

△ 마을사람들 《미제놈의 개야!》, 《황구렝이야!》, 《반역자야!》 소리치며 밀려든다.

황구대: 아니 이것들 왜 이러는거야.

△ 마을사람들 기세 높다.
황구대 요한의 손목을 끌고 바삐 달아난다.

성도: 어머니, 제가 갈 길은 감이나 팔아서 학교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미제놈을 족치는데로 가는 길이예요.

어머니: 오냐, 네 말이 옳다.

성도: (둔덕진 곳에서) 애들아, 우리가 다시 학교로 가는 길은 이 땅에서 미제승냥이놈들을 몰아내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다. 우리의 이 두주먹으로 학교로 가는 길을 열자!

아이들: 옳다, 싸우자!

△ 마을사람들의 박수, 환호

종욱: 여러분!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해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을 때려부시는 싸움에 더 힘차게 떨쳐나섭시다.

△ 마을사람들 《옳다!》, 《싸우자!》,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자!》 높아가는 웨침, 마을사람들의 기세 높아질 때—

—막—

(박명철)

〔속 담〕

○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
감히 상대도 되지 못하는것이 멋모르고 함부로 덤벼드는 것을 이르는 말.

○ 강건너 불보듯 한다.
벌어지는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것을 이르는 말.

말하기교재

24. 삼 지 연

이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이며 이름난 명승지인 삼지연에 대하여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삼지연은 량강도 삼지연군의 중부에 자리잡고있는 자연호수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삼지연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일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제일가는 명승지의 하나입니다.》

삼지연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28(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군하시여 휴식의 한때를 보내신 혁명전적지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진군의 날 삼지연못가에 이르시여 삼지연은 경치도 좋고 물맛도 좋다고 하시면서 이 물을 량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해방하면 온 세상이 보란듯이 경치좋은 이 고장을 인민의 휴양지로 꾸리자고 하시며 대원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기로 이름난 삼지연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손꼽

히는 명승지로 되고있습니다.

삼지연은 백두고원의 높은 곳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삼지연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그 주변에 크고작은 못들이 많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못들은 다 말라버리고 현재 3개의 못만 남아있습니다. 이 3개의 못이 가지런히 있다고 하여 삼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세 못의 둘레는 모두 4.5km이며 물의 깊이는 3m정도입니다. 바다물면에서 삼지연물면까지의 높이는 약 1 385m입니다. 때문에 겨울에는 호수바닥까지 얼어붙었다가 이듬해 5월에 가서야 녹습니다.

삼지연은 바닥과 주변이 모두 속돌로 덮여있어 물이 맑고 깨끗하며 물맛도 좋습니다.

호수에는 줄풀이 많이 자라며 붕어가 살고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삼지연주변의 울창한 수림이 물우에 비낀 풍경은 마치 백두고원의 수려한 풍치를 거울에 비친듯 아름답습니다.

삼지연에는 고산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들쭉나무, 만병초, 노랑제비꽃을 비롯한 여러가지 고산식물들이 많이 자라고있습니다. 분비나무, 이깔나무, 사스레나무, 자작나무, 봇나무 등이 울창한 원시림을 이룬 삼지연일대에는 삼지연메닭, 삼지연사슴, 삼지연검은돈을 비롯한 천연기념동물들과 우는산토끼, 큰곰, 사향노루 등이 살고있어 자연풍치를 한껏 돋구어줍니다.

이처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푸른 원시림속에서 출렁이는 삼지연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이한 자연경치를 자랑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삼지연못가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각군상들과 봉화탑을 비롯한 대기념비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삼지연일대에는 혁명전적지를 찾아오는 답사자들을 위하여 독특한 건축형식을 갖춘 답사각들과 야영각들, 답사자회관, 편의봉사시설들도 훌륭히 꾸려놓았습니다.

오늘 혁명전적지이며 명승지인 삼지연으로는 해마다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찾아오고있습니다.

삼지연은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적을 길이 전하며 더욱더 아름다와질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해설을 끝마치겠습니다.

△ 말에서 높낮이선

높낮이선이란 소리를 높이고 낮추고 하여 이루어지는 말소리의 흐름선입니다.

높낮이선은 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납니다.

알리는 말이나 시키는 말에서 끝맺음의 말소리는 기본적으로 낮춥니다.

○ 영희는 교실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

○ 영호야, 서사시 《백두산》의 한토막을 잘 읊어봐라. ↘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말의 끝은 말소리를 높입니다.

○ 여기가 학생소년궁전입니까? ↗

○ 영희도 최우등을 했어요? ↗

추기는 말이나 느낌말에서 높낮이는 평평하게 끕니다.

○ 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여갑시다. →

○ 아, 귀중한 어머니당이여! →

25. 사랑의 손목시계

오늘따라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수업이 드디여 끝났습니다.

나는 종주먹을 쥐고 집으로 막 달렸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언제 돌아왔는지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아버지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나요?》

나는 가쁜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인지 여직 안 돌아오시누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눈길은 고개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둥근해도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기울지 못하고 서산마루에 그냥 걸터앉아있는듯 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얘들아!》 하고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전국지식인대회에 참가하셨던 아버지가 어느새 마당가에 들어서신것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는 한달음에 달려가 여러가지 훈장들이 번쩍거리는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얘들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한 일도 없는 이 아버지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시계를 안겨주시였구나.》 하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동생과 나는 아버지가 정중히 두손으로 받쳐든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약속이나 한듯이 《야!》 하고 손벽을 치며 깡충깡충 뛰였습니다.

시계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존귀하신 성함이 활달한 글체로 씌여져있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망한 나라에서는 지식인들이 버림을 받고있을 때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전국지식인대회를 열어주시고 또다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대를 두고 전할 귀중한 선물까지 안겨주시였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원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하늘에도 바다에도 비길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애들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이 은정을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그리구 이 시계처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원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받들어나가자!》

동생은 좋아라 손벽을 치고 어머니도 감격에 겨워 어깨만 들먹이는데 아버지의 억실억실한 눈가에는 맑은것이 한껏 어리여있었습니다.

《아버지! 꼭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목메여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습니다.

행복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이날 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손목을 살며시 가져다가 나의 볼에 대였습니다.

《찰칵찰칵…》 하는 손목시계의 초침소리가 나의 귀전에서 쟁쟁히 울렸습니다.

이때 동생 순희도 어느새 아버지의 손목을 가볍게 당기며 자기의 귀에 가져다대는것이였습니다.

어린 동생도 위대한 원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뜨거워 종시 잠들지 못하는것이였습니다.

《순희야!》

나는 동생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조용히 눈을 뜨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말 이밤은 우리 집 모두가 잠들수 없는 밤, 행복의 밤이였습니다.

△ 글을 이루는 요소들

글은 말마디와 문장, 문단(단락),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마디는 글에서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말마디에는 하나하나의 단어, 표현, 성구와 같은것이 속합니다.

문장은 글에서 말마디보다 더 큰 단위입니다. 문장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상을 나타냅니다.

문단(단락)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글의 단위입니다. 문단(단락)은 여러개의 생각을 담은 문장들로 이루어집니다.

구성은 글전체의 기본내용을 담은 그릇입니다. 구성은 글을 이루는데서 제일 큰 단위입니다.

글은 이렇게 말마디, 문장, 문단(단락), 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옹근글을 지을 때에는 글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잘 맞물려야 합니다.

읽기교재

26. 뻐기던 바위

양지바른 남산기슭에
억년묵은 큰 바위 하나 있었네
그는 땅이 꺼지도록 집채같은 몸을 흔들며
언제나 큰소리쳤네 날마다 자랑했네

《이 세상에 나처럼 굳건한자 없으리
그 무엇이 감히 나를 건드리랴
억년을 하루같이 억세게 살아왔다
앞으로도 영영 굳건히 서있으리！》

하루는 까치가 날아가다 말했네
《바위어른, 조심하세요

씨앗이 날아와 떨어졌군요
어른님몸에 해되리다！》

《으하하하！ 현미경으로야 볼수 있는 씨앗이
감히 이 바위어른을 어쩐다구？》
바위는 코웃음을 쳤네
온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크게 웃었네

하루는 수리개가 날아가다 놀랐네
《바위어른, 정신차리오
씨앗이 싹텄소
어른의 심장에 뿌리를 박고있소！》

바위는 혀를 찼네
《자넨 웬 걱정이야?
그따위 씨앗이 천만개 뿌리박은들
이 바위어른 끄떡이나 하리！》

하루는 바람이 지나가다 타일렀네
《여보게 바위, 자네 틈사이에



가둑나무가 깊이 뿌리내리는구만
위험하네 위험해！》

바위는 벌컥 성을 냈네
《자네도 이 바위를
무른 메주 보듯 하나？
그런 충고는 내게 소용없네.》

하루는 둥근달이 내려다보며 꾸짖었네
《여보게 바위, 자네 정신있는가
가슴팍에 자라는 가둑나무를 그냥 두다니
어서 빼버리게 큰일나겠네！》

거만한 바위는 달님의 비판도 비웃었네
《그래도 하늘에서 살기에
대범한 큰 인물인줄 알았더니
소소한 잔소리군이군！》

그 누구의 충고도 비판도 받지 않던 바위
아름드리 자란 가둑나무뿌리에
두동강 세동강 쩍 갈라졌네
그 위용 온데간데 없어졌네

아무리 사소한 낡은 사상잔재도
뿌리뽑지 않으면 자라고자라
뻐기던 바위처럼 제 신세 망치리！

(김신복)

〔속 담〕

○ 바람벽에도 귀가 있다.
몰래 한 말도 다 알게 된다는 뜻에서 어느때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

○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
적은 손실이라고 심상히 여기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말.

읽기교재

27. 큰 교실

하루공부를 마치는 다섯번째 시간 끝종이 길게 울리자 학교는 흥성거리기 시작했다.

정숙하고 긴장되였던 교실들에서 마음 거뜬해진 학생들이 복도로, 운동장으로 쏟아져나온다.

운동장에서는 벌써 축구시합을 벌려놓았다.

공을 따라 와—와— 밀려다니는 아이들, 철봉에 매달려 다람쥐처럼 재주를 부리는 아이들… 웃음속에 시간가는줄 모른다.

그러나 학급반장인 문성이의 마음은 지금 뽀얗게 흐려있었다. 자기는 교원실에 불리워가서 머리를 못 들게 꾸중을 듣고 오는 길인데 학급을 망신시킨 장본인들은 셈평좋게 공을 차고있는것이 아닌가.

문성이는 더는 참지 못하여 성난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여 현구! 승민이!—》

땀방울을 휘뿌리며 달려들던 공격수도 결사적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입술을 깨물었던 문지기도 흠칫 놀라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아이들은 학급반장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살피며 축구장에서 우르르 달려나왔다.

《너희들 량심이 있니? 학급을 그만큼 망신시켜놓구두 맘이 편한가 말야? 공부할 생각은 안하면서 놀기는 두몫세몫 하려드니…》

문성이는 눈을 딱 부릅뜨고 다몰아세웠다. 현구와 승민이는 문성이의 얼굴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쩔쩔맸다.

그들은 지리시간에 꼭같이 지명을 받고 칠판앞에 나갔었다. 우리 나라 지도를 그리고 큰 강들을 표시하는 문제였다. 현구는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고향땅을 적시며 흐르는 대동강은 눈을 감고도 그려넣을수 있는데 남쪽에 있는 강들이 자꾸만 헛갈렸다.

(에잇, 참 지도를 그려봐야 하는건데…)

아무리 후회해도 이젠 쏟친 물이였다.

그리하여 례성강을 그린 곳에 한강이라고 써넣고 금강과 례성강은 위치를 몰라 이름만 삐뚤삐뚤 써놓았던것이다.

승민의 경우는 좀 달랐다. 그는 손재간이 없다고 지도 그리는 련습을 포기하고말았기때문에 칠판에 그려놓은 조선지도가 그만 고구마처럼 되고말았다. 거기에 강을 그려넣다보니 락동강이 흘러들어간 바다가 조선동해인지 조선남해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여버렸다. 때문에 락동강이 어느 바다로 흘러드는가고 지리선생님이 캐물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조선동해로 흘러든다고 대답했던것이다.

어제 있은 일을 생각하던 문성이는 두 동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축구나 이기면 뭘 하니? 공부부터 잘해야지. 이젠 별수 없어. 오늘부턴 집에 못 갈줄 알아. 실력이 떨떨한 동무들은 다 교실에 붙잡아두구 공부를 시킬테야.》

그러자 승민이는 눈이 떼꾼해져서 그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난 아무래도 지도공분 자신없어.》

문성이는 승민의 한숨소리를 듣자 자기가 너무한것 같아 목소리를 한결 낮추었다.

《그렇게 나앉을 생각만 하면 되니?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분단위원장동무가 너무 걱정하길래 내가 만들어본건데…》

이러면서 그는 마분지지도를 꺼내보였다.

《여어, 그것만 있으면 지도 그릴 걱정은 없겠구나. 그거 나 달라.》

승민이는 떡심좋게 손부터 내밀었다.

《가만, 다른 동무들두 다 좋다면 하나씩 만들어가지게 하자. 내 이제 분단위원장동무와 의논할테야.》

문성이는 성급히 말하고나서 교사주변을 두리번두리번 살피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학교뒤뜰에 계시였다. 깨끗한 모래터우에 넓게 자리를 잡으시고 나무막대기로 무엇인가 그려나가시는것이였다. 자신있게 죽죽 금을 그으시기도 하고 잠시 허리를 펴고 여겨보시다가는 다시 고쳐그리군 하시였다.

문성이는 급히 달려가다가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아, 너 언제 왔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기척을 느끼시고 뒤를 돌아보시였다.

《이제부턴 그날 배운건 무조건 따로윈 다음에 보낼테야! 이러다간 최우등분단은 고사하구 거부기분단이 되겠어. 축구구 뭐구 다 잡아떼서 붙잡아 앉혀놓구 공부를 시켜야 해.》

문성이의 열띤 목소리를 들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용히 타이르시였다.

《축구련습도 해야지. 체육도 학습의 한 과목이 아니냐. 문제는 동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거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격하기 잘하는 문성이의 마음을 누잦혀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수도가에서 얼굴을 씻은 현구와 승민이가 《분단위원장동무!》 하고 부르며 달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웃음으로 동무들을 맞으시였다.

《그래 축구훈련은 다 끝냈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두 동무를 번갈아보시며 다정히 물으시였다.

《저… 많이 훈련했어.》

《공부부터 해야지 뭐.》

현구와 승민이는 이러면서 문성이를 얼핏 쳐다보았다.

문성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앞이여서 두 동무에게 면박을 주지 못하고 쩝쩝 입맛만 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리신 모래판우의 그림을 보던 동무들은 약속이나 한듯 환성을 올렸다.

《야, 조선지도구나!》

모래판우에는 큼직한 조선지도가 그려져있었다. 지도우에는 큰 산줄기들과 강들이 표시되여있고 류역을 따라 펼쳐진 벌들의 이름까지 활달한 글씨로 씌여져있는것이였다.

문성이는 눈이 커져서 그 지도를 바라보고있었다. 현구와 승민이도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기에 조선지도를 그려보시는지 그 뜻이 느껴져서 아무 말도 찾을수가 없었다.

갑자기 정색해진 동무들의 얼굴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쾌활한 음성으로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자, 봐라. 우리 나라가 얼마나 잘생겼니? 우리 나라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야.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왔단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나라를 더 잘 알구 아름답게 그릴줄도 알아야 해.

그럼 우리 함께 우리 나라 지도를 만들어보자. 승민이와 현구는 강줄기를 따라가며 골을 파내라. 나와 문성이는 산줄기를 따라가면서 모래를 쌓아올리자. 그러면 우리 나라 지형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을거야.》

《정말!》

《멋진데!》

동무들은 팔을 걷고 나섰다. 일이 끝나갈수록 산들은 북쪽과 동쪽에 많이 솟아있고 벌은 서쪽과 남쪽에 펼쳐져있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자기들의 손으로 쌓아올린 산과 산줄기들은 당대 잊어버릴것 같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기있게 눈을 빛내시며 현구의 손목을 꼭 잡으시였다.

《참, 너희들 교편물실에 있는 사판을 본 생각이 나지? 우리두 그런 지도를 만들수 없을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무들은 서로 눈길이 마주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눈길로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것이란다. 우리들도 마음을 합치고 솜씨를 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어. 열번 보는것보다 자기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는것이 진짜 실속있는 공부란다. 어때, 팔걷고 나서볼 생각들이 없니?》

그러자 신심에 넘친 웨침이 일시에 터졌다.

다음날부터 모형사판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였다.

그것은 모든 동무들이 분공을 받고 참가하는 파외활동이였고 그 시간은 그대로 열의높은 학습시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팔을 걷으시고 동무들과 함께 종이떡을 이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땅 북변에 장엄하게 솟아있는 백두산을 먼저 부각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온 나라에 줄줄이 뻗어내린 산줄기들과 강들을 하나하나 그리시였다. 동무들은 그 지도우에 강과 산줄기들을 새겨나갔다.

며칠후 교실은 명절날처럼 흥성거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기쁨에 휩싸인 동무들을 휘둘러보시였다.

《정말 찍어낸 지도처럼 색칠도 잘되였구나. 우리 분단동무들이 한가지씩 재간을 내니 참말 큰일을 해냈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랑높은 성과를 동무들모두의것으로 돌려주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시며 문성이의 손을 힘껏 잡아주시였다.

《참, 잊을번 했구나. 이걸 받어. 엊저녁에 만경대 증조할아버님을 찾아갔댔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방을 여시고 몇개의 주머니를 꺼내놓으시였다.

《우리 나라의 오곡종자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머니들을 문성이에게 안겨주시였다. 주머니마다 《벼》, 《보리》, 《콩》… 종자이름까지 또박또박 씌여있었다.

《아니？！ 이건…》

문성이는 눈앞이 어른거리여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분단위원장동무！》

그는 목에 뜨거운 덩어리가 막힌듯 하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배움의 나날을 실험과 실습으로 꽃피워주시고 자기들의 교실을 교정으로, 실습지로 넓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살피심이 하도 고마와 아이들은 손벽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종자주머니, 환희와 희망에 넘쳐 꽃송이처럼 웃는 얼굴들…

대보산마루에 걸터앉은 해님도 웃음을 머금고 그들의 교실을 부러웁게 바라보고있었다. 스무개의 책상, 방은 작아도 그것은 참으로 이 나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큰 교실이였다.

(박춘호)

△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언어를 가지고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눈앞에 펼쳐보이듯 그리는 예술의 하나입니다.

문학이 인간의 생활을 그린다는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물론 걸모습과 행동까지도 눈에 보는것처럼 생동하게 그려낸다는것을 말합니다.

소설 《큰 교실》을 보면 하루공부를 마치는 종이 울리자 교실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나와 축구시합을 벌리는 아이들, 다람쥐처럼 철봉에 매달려 재주를 부리는 아이들, 교원실에 불리워가서 꾸중을 듣고 기분이 흐려져 나오는 학급반장 문성이, 그가 학급을 망신시킨 현구와 승민이를 다불러세우는 모습 등을 생동하게 그리고있습니다.

이처럼 문학은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참되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문학을 가리켜 인간학이라고 합니다.

글짓기교재

28. 최우등생의 영예를 지닌 김명숙동무에게

명숙동무, 이번 학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최우등생의 영예를 지녔다지. 축하한다. 진심으로 말이야.

어제 평양견학 갔다온 춘희동무를 만나서 동무의 소식을 자세히 알게 되였어. 특히 신문에서 동무의 학습경험에 대한 기사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감동되였는지 모른다.

학습제일주의로 나갈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하루 6시간이상 자학습을 하고 해마다 많은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나뿐아니라 우리 동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

나는 앞으로도 동무가 최우등생의 영예를 계속 지님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도 공부를 직심스럽게 해서 꼭 최우등생이 되겠어. 그리하여 그 기쁜 소식을 다음번 편지에 알려주겠어. 믿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그럼 최우등을 한 동무에게 다시한번 축하를 보낸다.

안녕히.

××××년 8월 20일
영미 보냄

읽기교재

29. 어머님의 마지막모습

항일유격대가 난만(남만)원정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던 어느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철주동생으로부터 어머님의 병세가 몹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샤오사하(소사하)에서 동무들이 주는 돈으로 좁쌀 한말을 사가지고 투치디엔거우(토기점골)로 향하시였다.

어머님을 찾아 발걸음을 다그치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머리에는 잊을수 없었던 지난날이 생생히 떠오르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감옥에서 나오신 후 둥만(동만)땅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신 다음에는 집에도 종종 들리시였고 그때마다 어머님의 병에 도움이 될만 한 약재도 구해오군 하시였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어머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였던것이다.

어머님께서는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앉혀놓고 이렇게 타이르시는것이였다.

《네가 혁명을 하려거든 혁명에 전심하고 세간살이를 하려거든 세간살이에 전심하고 량자간에 어느 하나를 택하거라. 내 생각 같아서는 집에 철주도 있고 우리들끼리 벌어먹을수 있으니 너는 집근

심일랑 하지 말고 혁명에만 전념하는것이 좋겠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집으로 다니는 회수를 줄이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한 후에는 거의나 집에 드나들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이 후회되시였다. 어머님께서 만류하시더라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어야 했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프시였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한다는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였다.

투치디엔거우가 가까와질수록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걸음은 어쩔수 없이 빨라지시였다. 중환에 계신 어머님의 모습을 뵙게 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산란해지시였다.

낯익은 초가가 어느새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시야에 비쳐들었다. 삽짝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설듯말듯 하는데 방문이 급하게 벌떡 열리였다.

《어머니!》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문설주에 기대앉아 웃고계시는 어머님 앞으로 총총히 다가가며 소리쳐 부르시였다.

《글쎄 내 아무래두 발자국소리가 귀에 익다 했지.》

어머님께서는 토방우에 벗어놓은 쌀자루의 멜빵을 만지며 반가와서 어쩔줄 몰라하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날 밤 어머님과 함께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화제를 자꾸만 정치문제에로만 유도하시였다. 집안살림이나 자신의 병세가 화제에 오르면 얼른 매듭을 지어버리군 하시였다.

아들에게까지 병을 숨긴다는것은 그만큼 병이 위급한것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판단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모르는 눈물을 삼키시였다.

다음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침식사를 일찍 끝내고 철주동생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였다. 나무를 하시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해가 질무렵에야 나무를 해가지고 마을로 내려오시였다. 갈밭이 내려다보이는 굽인돌이에 나서자 마당끝에 서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띄우시였다.

《아니, 이 산에서 땔나무가 없을가봐 걱정이 돼서 그러느냐?》

사립문가에서 기다리던 어머님께서 문득 언짢은 목소리로 물으시는것이였다.

《차츰 네가 이상해진다. 무송에 있을 때두 그렇지 않았구 저너머 흥륭촌에 있을적에두 그런줄 몰랐는데 요새는 집걱정이 늘어났으니 말이다.》

어머님의 음성은 갈려있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못 들은체 하고 천연스럽게 뜨락으로 걸어들어가시였다.

그날 저녁 오래간만에 네식구가 한상에 둘러앉으시였다.

막내동생이 잠든 다음 어머님께서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였던 몸을 일으켜세우고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보니 너는 이전보다 좀 달라졌다. 네가 쌀자루까지 지고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줄을 나는 몰랐다. 앓고있는 이 에미걱정때문이겠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만 그만한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늘이려고 푸쑹에서랑 네 손목을 잡고 험한 령을 넘어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나 받자구 그랬겠느냐? 너에게는 더 큰일이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 길이나 빨리 가거라.》

어머님의 말마디들은 격정으로 떨리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무를 한다는것도 그렇다. 네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셈치고 집걱정은 아예 말아라. 네가 집을 떠나서 혁명사업을 잘하면 내 병이 다 나을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부대를 데리구 곧 떠나거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즉석에서 대답을 올리시였다.

《어머니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래일은 소사하로 갔다가 부대를 데리구 남만으로, 량세봉선생한테로 곧 떠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눈물이 콱 쏟아져나와 벽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어째서인지 아버님의 장례식때에 체험했던 일이 느

닷없이 떠오르시였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상복도 입지 않고 아버님의 묘소에도 가지 않으시였다. 어머님께서 산소에 자제분들과 함께 가시지 않은것은 눈물을 보이시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런 어머님이시였기에 그처럼 쓸쓸한 병상에 계시면서도 서슴없이 아드님이 갈 길을 재촉할수 있었고 아드님에게 매를 대는 심정으로 온몸과 넋이 짜릿짜릿하게 심각한 훈계의 말씀을 해주실수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길떠날 차비를 하시였다. 신발끈을 매고계실 때 어머님께서는 고리짝밑에서 5원짜리 지전 넉장을 꺼내여주시였다.

《객지생활을 하느라면 돈을 써야 할 때가 많겠는데 이걸 건사해라. 남자의 주머니에는 정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정작 돈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집어넣지 못하고 어쩔바를 몰라 망설이시였다. 그 돈 20원에 얼마나 큰 어머님의 로고가 깃들어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계셨기때문이였다.

손가락끝이 모지라지도록 삯빨래도 하고 삯바느질도 해서 푼푼이 저축해둔 20원의 돈!

소 한짝에 한 50원정도씩 할 때였으니 그만한 돈이면 중소 한마리는 살수도 있었고 쌀을 사서 세식구가 1년은 살아갈수도 있는 돈이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토방밑에 내려서신 다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여 작별인사를 하시였다.

《어서 떠나거라. 아무래도 갈 길인데.》

어머님께서는 병색이 짙은 얼굴에 미소를 애써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차마 동구밖으로 인차 나가지 못하고 집둘레를 돌기 시작하시였다. 몇바퀴 돌고있을 때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제끼며 준렬하게 꾸짖으시는것이였다.

《상기두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구 우물쭈물하느냐? 나라를 찾겠다구 결심품구 나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예리고 집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너는 집안일을 걱

정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계시는 삼촌을 생각하구 외삼촌을 생각해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 … 네가 장차로도 이 에미걱정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그때의 어머님의 모습은 어머니라기보다도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였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를 모시고있다는 자랑으로 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슴이 터져나갈것만 같은 행복감을 느끼시였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깊이 숙이시였다. 그런 다음 동구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시였다. 나무다리를 건느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니 흰옷을 입으신 어머님께서 문설주를 짚고 일어서시여 오래도록 지켜보시는것이였다. 이것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시야에 비쳐든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이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난관으로 떠밀어보내면서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바래주시던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시며 의지를 가다듬군 하시였다.

〔속 담〕

○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가까이 사귀고 지내보아야 안다는 말.

○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무슨 일이든지 온갖 힘과 지혜, 성의를 다 바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말.

읽기교재

30. 놀고먹던 꿀꿀이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이다.)

옛날 어느 산기슭에 아담한 초가집 한채가 있었습니다. 뒤동산에는 푸른 숲이 우거지고 집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집에는 여러가지 집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야웅이가 방에서 깡충 뛰며 달려왔습니다. 야웅이는 먼길을 다녀온 말에게 인사할 생각도 못하고 《방금 주인이 그러는데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골라서 잔치상 반찬감으로 올리겠대요.》하고 쌔근거렸습니다.

《엉?…》

말은 눈이 둥그래서 야웅이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도 못하였습니다.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만 도간도간 들려올뿐이였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나?》

말이 언제나 생각이 깊은 황소한테 물었습니다.

황소는 눈을 끔뻑끔뻑하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아무래도 다 모여서 의논해봐야겠다.》 하고 멍멍이와 야웅이더러 꿀꿀이와 수닭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황소는 모여온 여러 짐승들을 둘러보며 말하였습니다.

《이젠 다 모였으니 누가 주인집잔치상에 올라야 하겠는지 의논해보자.》

이때 꿀꿀이가 반색을 하며 한걸음 썩 나서서 대답하였습니다.

《의논할게 있니? 뻔한걸 가지구. 잔치에야 내가 가야지.》

《뭐, 네가?》

모두 눈이 둥그래서 꿀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 않구 누가 가겠니? 너희들이야 일하느라고 바쁠게 아니냐.》

야웅이가 듣다못해 깨우쳐주었습니다.

《꿀꿀아! 내 말 좀 들어. 주인이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골라서 잔치상 반찬감으로 올리겠다는거야!》

《뭐? 바 반찬감으로?…》

꿀꿀이는 야웅이의 말을 듣고서야 말을 더듬으며 뒤걸음치다가 제 구유에 걸채여 펄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그 꼴이 하도 망측했으나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입을 다물고있었습니다.

마당에도 외양간에도 밝은 달빛이 소리없이 흘러들고 하늘높이 떼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소리만 기럭기럭 들려왔습니다.

갑갑증이 나는지 말이 절렁하고 방울소리를 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 참. 모두 생각들만 하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구나. 어서 의논을 해보자꾸나.》

그러자 멍멍이가 말을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이왕 먼저 말꼭지를 뗐으니 누가 놀고먹는지 한마디 하세요. 말아저씨야 일도 아주 잘하시지 않아요.》

《나야 뭐 크게 한 일이 있나. 그저 곡식단이나 실어나르구 연자방아나 돌리군 했지. 그리고 주인을 태우고 장거리에 갔다오기도 하구…》

말은 이렇게 몇마디 하고는 다른 짐승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때 고요하던 연자방아간에서 귀뚤귀뚤하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짐승들의 눈앞에는 무거운 연자돌을 밤늦도록 빙빙 돌리던 말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우리 말아저씨는 황소아저씨와 함께 힘든 일을 하는 상일군이지. 그러기에 우리 주인이 말아저씨에게 저렇게 방울을 많이 달아준게 아니요.》

멍멍이가 말의 목에 주렁주렁 매달린 방울들을 가리키며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뿐인가요. 말아저씨는 일솜씨도 아주 빠르지요.》

야웅이의 이 말에 말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 말구 정말 힘든 일만 도맡아하는 황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구.》

그러자 황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힘든 일을 도맡아한다구 그러나. 난 별로 자랑할만 한 일을 못했네. 해마다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여름이 되면 후치질을 했지.

그리고 가을에는 낟알을 실어들이고 겨울엔 두엄을 냈을뿐이지. 내딴에는 놀지 않고 일을 하느라고 했지만 말처럼 일손이 빠르지는 못하지. 그래서 나는 어뜩새벽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구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에야 일손을 떼군 했지.》

이때 구름속에 잠겨있던 둥근달이 얼굴을 내밀고 마당에 덩실하게 솟아있는 곡식낟가리들을 밝게 비쳐주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이슬방울이 반짝반짝 빛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다 환한 빛을 뿌리는듯 한 곡식낟가리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낟가리에 스며있는 황소의 귀중한 땀방울들이 달빛을 함뿍 받아안고 빛을 뿌리고있는듯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야웅이가 한마디 하고싶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아서 절구통우에 깡충 뛰여올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마당가에 쌓아놓은 조낟가리밑에서 바스락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누군가가《쥐다！》하고 소리치자 모두 절구통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달려갔는지 조낟가리앞에서 야웅이의 야무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짝말앗！》

야웅이의 두눈에서는 시퍼런 불줄기가 펄펄 쏟아져나왔습니다. 그 불빛앞에 쥐 세마리가 부들부들 떨고있었습니다.

《네놈들 훔쳐먹으라고 쌓아놓은 낟알인줄 아니？ 이놈들！》

야웅이는 벼락같이 소리치며 달려들어 노끈으로 쥐를 꽁꽁 묶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 왓！》

야웅이는 한줄에 묶은 놈들을 줄레줄레 끌어다 대추나무밑둥에 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절구통우에 뛰여올라 생글생글 웃으며 《기다리게 해서 안됐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안돼긴 뭐가 안돼. 참 네가 큰일을 했다. 저 쥐무리들을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봐라. 그러면 이 집 낟알이 한알도 남아있지 않을거다. 그러니 너는 우리들이 못하는 큰일을 하고있는셈이야.》

《그 말이 옳네. 몸은 비록 작지만 아주 큰일을 하고있지. 그러기에 주인은 야웅이가 하는 일이 고마와서 자기네가 사는 방에 함께 데리고 살지 않나.》

황소와 말이 칭찬해주는 바람에 야웅이는 절구통우에 올라와있는것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있어서 올라섰다가 그냥 내려갈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다구 그래요. 큰일이야 황소아저씨와 말아저씨가 도맡아해주기때문에 전 그저 쥐나 잡지요. 그게 내가 맡은 일이니까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절구통에서 홀딱 뛰여내렸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야웅이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기특해서 모두 머리를 끄덕이며 《야웅이는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중한 일군이지!》 하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멍멍이가 일어서서 《전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을 지키는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닭은 한마디만 하고 물러앉는 멍멍이를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깃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네가 한 일이 왜 그것뿐이냐? 네가 우리를 살려준 일도 있지 않니? 사실 네가 아니였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기나 하겠니? 정말 그때일을 생각하면 죽어도 멍멍이를 잊을수 없어.》 하고 산에서 내려온 삵한테 물려가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멍멍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놈을 물어메치지 않았더라면 수닭은 정말 큰일날번 하였습니다.

《아무렴 그렇구말구. 그러나 수닭만 고맙다고 할 일이 아니야. 우리들이 밤마다 편안히 잘수 있는것도 다 멍멍이덕이지. 그러니 멍멍이는 이 집의 복동이야.》

황소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모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먼 산 숲속에서 부엉부엉하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밤도 퍼그나 깊었는데 이젠 그만하고 자지들 않겠소?》 하고 퉁겨주는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있는 동안에 꿀꿀이는 어쩐지 저만이 놀

고먹는 짐승같이 생각되여 속으로 슬그머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저 얼굴 둘러보며 눈치만 슬슬 살피다가 남산만 한 배를 그러안고 일어서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러니 별수없이 꼬끼요수닭이나 꼬꼬댁암닭이 잔치상에 올라야 되겠군 그래.》

그러자 야웅이가 발딱 일어나 꿀꿀이를 쏘아보며 따졌습니다.

《아니 뭐라구?… 왜 꼬끼요수닭이나 꼬꼬댁암닭이 잔치상에 올라야 한단 말이냐?》

꿀꿀이는 웬 참견이냐는듯 흘깃 야웅이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거야 뭐, 우리들가운데 놀고먹는게 꼬끼요수닭과 꼬꼬댁암닭밖에 더 있니? 해나는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몸치장이나 하고 이리저리 쏘다니기만 하더구나.》

《꿀꿀아,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 그래 넌 새벽마다 꼬끼요 하고 우는 수닭의 씩씩한 목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냐?》

멍멍이는 꿀꿀이가 하는 말이 몹시 거슬려 컹하고 마른기침을 하고 한마디 핀잔을 주었습니다.

《흥, 남의 단잠이나 깨우는 그 듣기 싫은 째진 소리…》

꿀꿀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만해보이는 수닭을 잔치상에 올리려고 긴 주둥이를 내두르며 고아댔습니다.

그러자 황소가 퉁방울소리를 떨렁 울리며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모두 일을 해보지 못한 건달놈의 수작이다. 수닭은 남들이 다 단잠을 자는데 자지 않고 때를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면 꼬끼요 하고 때를 알려준다. 그게 쉬운 일이겠니? 너는 수닭의 목소리를 째진 목소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렁찬 노래소리로 듣는다. 힘을 돋구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집안이 떨쳐일어나 보람찬 하루일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듣기 싫은 소리라구?…》

황소가 이렇게 내리엮는 바람에 꿀꿀이의 고개는 푹 수그러지고 입은 척 붙어버리고말았습니다.

《뭐, 그리구 또 꼬꼬댁암닭이 잔치상에 올라야 한다구? 날마다 알을 낳아주는 착실한 살림군을 네 마음대로 잔치상에 올려?》

꿀꿀이는 더욱더 고개가 수그러지고 이제는 곁눈질도 못하였습니다.



말이 모두를 둘러보며 몇마디 더 하였습니다.

《저 곡식낟가리들과 고간에는 주인과 우리를 일찍 깨워준 수닭의 공로도 깃들어있다. 그러니 시간을 알려주는 꼬끼요수닭과 많은 알을 낳아주는 꼬꼬댁암닭을 어떻게 잔치상에 올린단 말이냐? 그럴수 없다!》

꿀꿀이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때 야웅이가 꿀꿀이에게 한걸음 다가서며 말하였습니다.

《얘, 꿀꿀아, 어디 네가 한 일을 좀 말해보려무나.》

그러나 꿀꿀이는 척 붙어버린 입을 다시는 열지 못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쿨쿨 낮잠이나 자다가 남이 벌어들인거나 첩첩 먹으며 살아오던 꿀꿀이가 부지런히 일하는 그들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의 잔치상에 오를 짐승이 누구라는건 뻔하게 되였구나.》

황소의 말에 모두들 머리를 끄덕이며 자기네 보금자리로 흩어져갔습니다.

텅 빈 마당 한구석에는 꿀꿀이만 혼자 남았습니다.

둥근달도 긴긴 세월 게으르게 보람없이 살아온 꿀꿀이를 쌀쌀하게 내려다보며 차거운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아이쿠, 내 신세야! 한평생 빈둥빈둥 놀고먹는게 늘어진 상팔자인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 되였담. 결국 잔치상에 오를 놈은 나밖에 없구나! 으흐흑…》

꿀꿀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때늦은것이였습니다.

〔속 담〕

○ 걸가마도 안 끓는데 속가마부터 끓는다.
제가 나설것도 아닌데 중뿔나게 나서서 우쭐렁거린다는 말.

○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생각지 않던 사람이 뜻밖에 좋은 일을 했을 때에 롱으로 이르는 말.

글짓기교재

31. 뻐스에서

10월 15일 화요일 개임

나는 뻐스에서 선전을 할데 대한 소년단조직의 분공을 받고 시외로 가는 뻐스정류소로 갔다.

그런데 아침부터 오싹거리며 춥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금녀동무는 나에게 몸이 불편한데 어서 집에 가 누우라고 하면서 오늘만은 자기가 분공을 대신해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망설이였다.

순간 나의 머리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조직의 분공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신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금녀의 손을 다정히 잡으면서 말하였다.



《금녀야, 정말 고마와. 그러나 어떻게 분공을 대신할수 있겠니. 내가 받은 분공은 내 힘으로 해내야 해.》

이날 나는 뻐스에 올라 마음을 다잡고 선전을 하였다.

조직의 분공을 수행하고 집에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즐거웠다.

10월 21일 월요일 개임

나는 오늘 아침 일찌기 할머니네 집에 들렸다가 학교에 가려고 뻐스를 탔다.

아침출근길이라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명랑하고 걸음도 빨랐다. 우리를 태운 뻐스는 경쾌하게 달렸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차창으로 흘러들었다. 참으로 기분이 상쾌하였다. 나는 줄곧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수도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뻐스가 다음정류소를 떠나려고 할 때였다.

《애기엄마, 여기 앉으라구.》하며 내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한 애기어머니에게 자리를 내주는것이였다.

《전 이젠 다 왔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내야 일두 못하는게… 어서 공장에 나가 일할 사람이 편히 앉으라구.…》

이렇게 서로 사양하다가 끝내 애기어머니가 자리에 앉게 되였다.

나는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뻐스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나에게로 쏠리는것 같았다.

(어떻게 할가. 이제라도 일어날가?)

할머니보다 먼저 자리를 내주지 못한 자책에 나의 얼굴은 모닥불을 뒤집어쓴것 같았다.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점점 더 빨개졌고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가봐 두렵기까지 했다. 당장이라도 뻐스에서 뛰여내리고싶었다.

아침에 뻐스에서 있었던 일로 하여 오늘은 하루종일 마음이 개운치 못했다.

나는 오늘 있은 일을 두고두고 잊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공부도 잘하고 례절도 잘 지키는 소년단원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니 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32. 민 요

사 리 화

얄미운 참새떼
날아가고 날아오네
한해농사 다 짓도록
놀기만 하던것들

홀아비 피땀으로
혼자 지은 낟알을
밭고랑이 훤하도록
다 쪼아 처먹누나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하늘 가득 밝은 달아
저기저기 저 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은도끼로 찍어내고
옥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량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33. 맏 형

아직도 음달진 산골짜기마다에는 흰눈이 얼룩소잔등처럼 희끔희끔 보이는 이른봄이다. 날씨는 차고 쌀쌀하다. 하지만 두 아이가 개울물속에 들어가 물고기잡이를 하고있었다.

《일남아, 빨리빨리… 고기가 그쪽으로 달아난다.》

왼팔에 소년단반장표식을 단 아이가 반두를 들어올렸다.

《에이, 또 허탕이구나.…》

일남이는 고기를 잡느라고 물참봉이 된 바지를 억이 막혀 내려다보았다.

《야, 너 물고기구 뭐구 어서 바지나 짜입어라.》

《일없어. 난 오늘 물고기를 꼭 잡아야 해. 못 잡으면 꽝포쟁이가 되거던.…》

《야, 그거 참 야단났구나.… 오늘은 편길이때문에 죽도록 고생하게 됐는데.》

편길이란 일남이의 첫째동생이다. 그는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그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성미다. 며칠전에 금붕어를 갖고싶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에게 쌍지느러미금붕어를 한마리 얻어다 어항속에 넣어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죽여놓고는 어제저녁부터 밥도 잘 안 먹고 투정질만 하였다. 그래서 일남이는 편길이를 달래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랬더니 만약 거짓말하면 형이라 부르지 않고 꽝포쟁이라 부르겠다고 했던것이다.

일남이는 물참봉이 된 바지를 벗어 비틀어짜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 느닷없이 저쪽 굽인돌이에 승용차들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길과 개울이 잇닿은 그들결에 이르러 스르르 멈춰서는것이였다.

일남이는 금시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뜻밖에도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차에서 내리셨기때문이였다.

반장아이는 어느새 달려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꾸벅 절을 하였

다. 일남이는 서둘러 바지를 입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만 당황해서 바지를 돌려입었다.

가까이에 다가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시였다.

돌려입은 바지괴춤을 두손으로 붙들고 땀을 빼는 일남이가 민망스러워 반장아이가 대답을 드리였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 그래서 찬물속에 들어간단 말이냐. 아직 물이 얼음처럼 차거운데 감기라두 만나면 어쩔려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못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뒤에 서있는 일군들에게 불을 좀 피워주고 가자고 하시였다. 부관아저씨는 같이 온 일군들이 개울가에서 주어온 나무무지에 불을 달았다.

일남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에 이끌리여 불가로 다가섰다.

《너 물고기잡이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일남이는 물고기를 잡게 된 사연을 두서없이 말씀드리였다.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래 물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저런?… 야단났구나. 동생들앞에서 짱포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겠는데… 동생이 몇이냐?》

《일곱입니다.》

《일곱?!…》

경애하는 원수님의 얼굴에는 얼핏 엷은 의혹이 스치는듯 하더니 문득 밝아지시였다.

《대단한걸.… 넌 동생이 많아서 좋겠구나!》

《예, 우리 반 동무들은 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일남이는 챙챙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대답을 올리였다.

《그래?… 어디 동생들의 이름이나 한번 불러보아라.》

《저어… 첫째동생은 김편길입니다. 둘째는 박혜정, 셋째는 홍철, 넷째는 홍옥화, 다섯째는 리순철, 여섯째는 곽명철, 일곱째는 최향미입니다.》

《네 이름은 뭐냐?》

《난 고일남입니다.》

《고일남?!…》

《나에겐 동생이 하나두 없었던건데 우리 아버지가 셋을 데려오고 어머니가 넷을 데려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성들이 각각 다르구만.… 좋아! 정말 좋아!…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 좋은분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하신듯 모닥불주변을 거니시였다.

《어떠냐?… 동생들이 많아지니까 힘들지?》

《일없습니다.》

《왜 일없겠느냐?… 남남끼리 한가정이 되지 않았느냐?》

일남이는 처음에는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아이들이 많아져 복잡하고 좀 시끄러웠는데 차츰 정이 들어 이젠 동생들이 막 귀엽고 하루도 떨어질수 없다는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다.

《참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훌륭하지만 너도 훌륭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남이의 손을 따뜻이 잡으시였다.

《너는 어린 나이에 벌써 나라를 돕고 나를 도와주고있는데 우린 여직 그걸 모르고있었구나.…》

순간 일남이의 입이 벙글사 해지며 보조개를 살짝 지었다.

(단지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형구실을 하느라고 애를 썼을뿐인데 나라를 돕고 원수님을 돕다니?!…)

그는 너무도 분에 넘치는 치하에 가슴이 막 울렁거렸다.

《그래 넌 무엇이 요구되느냐?》

《난 그저 물고기만 빨리 잡으면 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리내여 호탕하게 웃으시며 일남이의 손을 잡아 흔들어주시였다.

《이 애를 보시오. 동생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처럼 애쓰고있습니다. 부모없는 일곱명 아이들을 자기 친동생처럼 사랑하고있는 일남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훌륭합니까!》

잠시 먼 하늘가에 시선을 주고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인가 결심하신듯 숙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우리 이 애를 좀 도와주고 갑시다!》

일남이는 어린 마음에도 너무도 죄송스럽고 당황하여 한동안 어리둥절해 서있었다.

얼마후 부관아저씨가 낚시대를 가져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럭바위가 있는 소를 낚시터로 정하시였다.

소용돌이치며 쏜살같이 흐르던 개울물은 이곳에 이르러 잦아들며 잔잔하였다. 물속은 그 밑창의 비밀을 알수 없게 진한 록색으로 보였다.

맑은 물은 반사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담아싣고 조용히 춤을 추었다.

일남이는 가만히 비닐통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곁에 놓고 조심스레 쭈그리고앉았다. 턱밑이 희고 등이 파란 물촉새도 고즈넉한 정적이 깃든 낚시터에 방해를 끼칠가봐 저어하듯 소리없이 날아다녔다. 한 십오분쯤 지나서 고기가 물렸다. 등이 연한 노란빛이 도는 버들치였다.

일남이는 너무 좋아 벌씬 웃으며 말씀드리였다.

《야！— 이젠 됐습니다.》

《아니야, 어항속에 넣을 물고기는 고와야 해！ 편길이는 아마 고운 물고기를 가지고싶어할게다.》

일남이는 뒤더수기를 긁적거렸다.

한 십분이 지나 다시 또 낚아내시였는데 이번에는 갈겨니였다. 갈겨니몸뚱이는 칠색무지개빛으로 곱게 빛났다.

일남이는 갈겨니를 받아 조심히 통에 넣었다. 볼수록 아름다운 고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낚시대를 거두어 부관아저씨한테 넘겨주시면서 물으시였다.

《일남아, 이다음 넌 무엇이 되려느냐？》

《전 인민군대가 되렵니다.》

《인민군대가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제 동생들도 다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 나보구는 분대장이 되여달라고 합니다. 헤！…》

일남이는 어줍게 웃으며 좀 수집어하였다.

《왜 분대장만 되겠느냐？… 대대장두 되구 련대장두 될수 있다！ 전사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거든！… 넌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우리 군

대의 참된 지휘관이 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칭찬에 일남이의 가슴은 몹시 벅차올랐다.

그러나 자기 집 형제들에게 돌려주시는 이 사랑에 남남을 서로 친형제로, 온 나라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는것을 다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기통을 들고 일어서시였다.

《동무들! 우리가 밤길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 일남이네 집에 들렸다 갑시다! 나는 일남의 부모를 만나고싶습니다!》

그러시고는 정다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일남의 동생들이 모두 그의 본을 따서 유치원의 맏형으로, 분단의 맏형으로 자라게 될것이며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훌륭한 맏형들로 자라게 될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또 있습니까!》

순간 일남이의 가슴속에서는 이름못할 격정이 쿡 치밀어올랐다.

《얘 일남아, 어서 가자!… 소년단반장동무도 같이 가자!》

한손에 고기통을 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른 손으로 일남이의 팔목을 잡으시고 승용차쪽으로 이끄시였다.

일남이의 얼굴에서는 뜨거운것이 방울방울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였다.

승용차는 맵시나는 다층씨리카트벽돌집들이 몰려있는 주택마을을 향하여 경쾌하게 달리기 시작하였다.

(김용길)

△ 등장인물

등장인물이란 문학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화, 우화에서와 같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동물, 식물 그밖의 사물현상들도 다 등장인물로 됩니다.

등장인물은 우선 주인공과 부차적인물로 나누입니다.

주인공은 작품에서 이야기의 중심적역할을 맡고있는 인물이고 부차적인물은 작품에서 이야기의 부차적역할을 맡고있는 인물입니다.

소설 《기관총》에서 경호는 작품의 기본이야기를 끌고나가는 중심적인 인

물로서 주인공이고 그밖의 민우식, 조성구, 만수 등은 주인공을 돕는 부차적 인물들입니다.

등장인물은 또한 긍정인물과 부정인물로 나누입니다.

긍정인물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답고 고상한 품성을 지닌 인물이고 부정인물은 그와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즉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증오감을 자아내는 계급적원쑤들과 생활에서 낡고 뒤떨어진 생각을 가진 인물들을 말합니다.

소설 《기관총》에서 긍정인물은 경호를 비롯한 그의 동무들이고 부정인물은 일제 《토벌대》 놈들입니다.

말하기교재

34. 병풍속의 호랑이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이였습니다.

어떤 고을에 심보가 몹시 고약하기로 소문난 한 군수놈이 새로 왔습니다.

군수놈이 새로 오는 날에는 의례히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하며 큰 잔치를 벌리군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놈은 오자 바람으로 잔치는 하지 않고 백성들가운데서 글을 잘 알고 총명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모두 불러오라는것이였습니다.

군수놈은 백성들의 기름을 깡그리 짜내려면 똑똑하고 지혜있는 사람부터 눌러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것입니다.

군수놈의 령에 따라 제일 처음으로 끌리여온 사람은 솜털이 보시시한 어린 소년이였습니다.

군수놈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부하들을 흘겨보며 《에끼, 이놈들! 저 코흘리개를 썩 끌어내지 못할가.》하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부하들은 어찌된 일인지 몸둘바를 몰라하면서 그대로 서있는것이였습니다.

군수놈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들, 갑자기 귀머거리가 됐느냐? 왜 이렇게 서고만 있는고.》

이때 그중 나이많은 한 부하가 군수놈앞에 다가서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는 어른과도 비길바 아니옵니다. 만약 량반의 가문에서 태여났다면 장차 커서 한개 고을 같은것은 물론 천하도 다스릴수 있는 소년인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자 군수놈은 갑자기 정신나간 놈처럼 너털웃음을 웃고나서 《뭐, 천하를 다스려!》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군수놈은 성을 발칵 내면서

《이놈들, 뉘앞에서 감히 코흘리개가 고을을 다스린다, 천하도 다스린다 하며 야단이냐? 내가 이 소년과 내기를 해서 소년이 지게 되면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여 나를 노엽힌 죄로 목을 베여도 무방할테지!》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고 모두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이때 소년이 머리를 쳐들고 《예, 그렇게만 되면 내 목을 베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이쯤되자 군수놈은 약이 올라 더는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군수놈은 앙심을 품고 부하들을 시켜 호랑이를 그린 병풍과 바줄을 가져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에게 바줄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이 바줄로 저 병풍속에 있는 호랑이의 목을 매여 당장 끌어내거라! 알겠느냐?》

그러자 소년은 태연하게 바줄을 집어들더니 씩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군수님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는 대문밖으로 걸어나가며 여유있게 말했습니다.

《군수님, 제가 이 대문밖에서 지키고있을터이니 몽둥이로 호랑이엉뎅이를 쳐서 대문밖으로 냅다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바줄로 목을 매여 끌고 들어가겠나이다.》

군수놈은 순간 땅이 꺼지게 발을 탕탕 구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끼! 얼빠진 놈, 몽둥이로 아무리 친다한들 어찌 그림속의

호랑이가 뛰여나올수 있단 말인고.》

이 말이 떨어지자 소년은 바줄을 집어던지고 깔깔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내리쳐도 움쭉도 하지 않는 그림속의 호랑이를 어찌 바줄로 비끄러맬수 있으리오. 못할것을 하라고 강다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빠진 놈인줄 아오.》

소년의 말을 들은 부하들은 물론 벼슬아치들까지 더는 참지 못해 얼굴을 돌리고 킥킥 웃어댔습니다.

얼굴이 수수떡처럼 된 군수놈은 다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구석으로 기여들어가고말았습니다.

〔속 담〕

○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일을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틀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말.

○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사람이 품성이 좋아야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말.

글짓기교재

35. 장자산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손꼽아기다리던 장자산혁명사적지답사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공기를 헤가르며 씽씽 달리는 뻐스에 몸을 실은 우리모두의 마음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러 간다는 생각으로 한없이 설레였습니다.

벌써 몇번이나 찾아오는 혁명사적지이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안겨줍니다.

이윽고 우리들을 태운 뻐스는 장자산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산봉우리들은 흰눈을 이고 내려보고있었지만 돌돌거리는 개울

물소리는 우리의 가슴속에 따뜻한 봄기운을 안겨주는듯싶었습니다.

강사누나의 안내를 받으며 사적관의 서관에서 걸음을 멈춘 우리는 벽면의 중심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영상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렀습니다.

사적관에서 강사누나의 종합설명을 듣고난 우리들은 곧게 뻗은 넓은 길을 따라 사적비가 서있는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우에 세운 사적비를 돌아보고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실 불같은 마음을 안고 두그루의 잣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푸른 잎새 쏴쏴 끝없이 설레이며 하늘을 찌를듯 서있는 두그루의 잣나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5돐을 맞으며 꺾이지 않는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하시려는 일념으로 손수 떠다 심으신것입니다. 두그루의 잣나무는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길이길이 전하려는듯 끝없이 설레였습니다.



우리들은 두그루의 잣나무를 돌아본 다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던 수수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사누나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어린시절에 이 집에 계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의 안녕을 그처럼 념려하시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사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손수 지어 부르신 《축복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장군님
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

가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위대한 대원수님의 안녕을 그처럼 바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가슴뿌듯이 안겨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학습터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습터앞에는 탁 트인 하늘로 산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뒤에는 푸르싱싱한 잣나무들이 설레이고있었습니다.

해빛이 따뜻이 비치는 학습터에는 의자바위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타는 정열을 안으시고 의자바위에 앉으시여 학습하시던 학습터!

오늘도 그날의 글소리가 우리의 귀전에 들리는듯 하였습니다.

학습터에서 강사누나의 설명을 듣고난 우리들은 노래보급터로 향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무들에게 배워주시던 《**김일성**장군의 노래》! 언제나 부르면 부를수록 용기와 새 힘이 솟는 노래입니다.

노래보급터를 떠난 우리들은 샘물터를 지나 한없이 경건해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군사놀이터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슬기와 용맹, 담력을 키우시던 군사놀이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앞에는 대장칼을 추켜드시고 원쑤격멸에로 부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삼삼히 떠올랐습

니다.

군사놀이터를 돌아보고난 우리들은 씨름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는 지금도 씨름터에서 맞서는 아이들을 배지기로 물리치시며 조선의 장수힘을 키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습니다.

씨름터를 떠난 우리들은 장수봉회상터로 갔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추억하시던 장수봉회상터는 해빛도 류달리 밝게 비치고 온갖 새 날아와 지저귀는 아름다운 곳이였습니다.

장수봉회상터를 지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루, 다래를 따신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알의 머루, 다래를 따시여도 먼저 마을사람들을 생각하셨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깃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은 《충성의 천리길》모형사판을 본 다음 장자산을 내려 뻐스에 올랐습니다.

맑은 샘 퐁퐁, 개울물소리 돌돌, 온갖 새 지저귀는 영광의 산 장자산!

장자산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은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높이 받들어모실 불타는 결의로 가득차있었습니다.

△ 글의 서술순서

글의 서술순서란 머리속에 무르익혀진 이야기내용을 글로 써나가는 차례를 말합니다.

글을 써나가는 차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건의 순차에 따라 쓰는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가 벌어진 차례대로 써나가게 됩니다.

둘째로, 이야기되는 사실의 크기나 중요성에 따라 글의 순서를 잡아 쓰는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에서 이야기되는 중요한 문제부터 차례로 쓰게 됩니다.

36. 귀뚜라미 우는 밤

별 많은 가을밤
깊어가는 가을밤
현지지도 먼먼 길
다녀오신 대원수님

새 나라 설계도
펼쳐가시며
깊고깊은 생각에
잠기셨는데

자지 않고 울어예는
귀뚜라미울음소리
창밑에서 귀뚤귀뚤
뜨락에서 귀뚤귀뚤

그런데 웬일인가
어느새 그쳤을가
여기도 잠잠
저기도 잠잠

문뜩 귀 기울이시며
조용히 일어서신
아버지대원수님
창문을 여시고 살펴보셨네

나무잎 우수수…
귀뚜라미 울던 뜨락에

경애하는 원수님
찬이슬 맞으시며 서계시였네

자욱자욱 자욱마다
귀뚜라미 자장자장
잠 재우시고
고요한 가을밤 불러오셨네

그 모습 못내 대견하시여
그 모습 못내 기특하시여
아버지대원수님
사랑의 미소 보내주실 때

아, 대원수님을 우러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맑은 그 눈빛
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났네

(김청일)

읽기교재

37. 영원한 불빛

정거장을 나선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키높이 자란 은행나무 우듬지며 수삼나무의 아지들에는 어느새 때아닌 흰 꽃이 활짝 피였기때문이였습니다.

《얘들아, 첫눈이 온다. 첫눈이!》

기다림칸앞 층계우에 나선 옥희와 성실이는 환성을 지르며 거리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함박꽃같이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보름달처럼 환한 가로등우에 흰 나비떼처럼 날아내리기도 하고 길가는 사람들의 어깨우에도 맴

돌아 내려앉기도 합니다.

등뒤에서 갑자기 비치는 두줄기의 곧은 빛발속에서 눈꽃과 함께 춤추며 돌아가던 세 소녀의 모습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멎어서는 승용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부신 빛발에 부딪쳐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었던 은주는 곧 승용차앞에 서계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그는 성실이와 옥희의 손을 잡아끌며 승용차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안녕하십니까！》

세 소녀의 쨍쨍한 목소리가 깊어가는 밤의 고요를 흔들어놓으며 거리에 울려퍼졌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시고 인사드리는 아이들을 넓으신 한품에 안아주시였습니다.

《은주가 참 오래간만이구나! 이 추운 날 어데 왔다 가느냐?》

《여기 보통강역에 와서 선전대활동을 하구 갑니다.》

《오, 선전대활동, 밤늦게까지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은주는 집이 경상동이라구 했지?》

《네.》

은주는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올렸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석달전 궁전소조작품전람회를 돌아보시러 오셨던 그날 라지오연구소조선생님한테서 들으신 은주의 집주소를 지금껏 잊지 않고계시였습니다.

《이 애들은?》

《저하구 같은 아빠트에 삽니다.》

《모두 차에 올라라. 집에까지 데려다줄테니…》

《야!》

옥희와 성실이는 기쁨을 걷잡지 못해 아버지대원수님의 팔에 매여달렸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요새 서해의 농촌마을들을 현지지도하신다구 하셨지. 먼길을 다녀오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바쁘신 걸음을 우리가…)

은주는 차에 오르려고 서두르는 두 동무의 손등을 살그머니 건드리고나서 아버지대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 우리들은 뻐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어서 올라타거라. 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

《…!》

은주는 목이 메여 다른 말을 더 하지 못하였습니다.

차는 눈덮인 길바닥을 소리없이 미끄러져갔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앉아있는 뒤자리를 향해 비스듬히 몸을 돌리시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보통강역에 가서 무슨 선전을 했니?》

《전기절약선전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선전하는걸 여기서 한번 들어볼가.…》

《네！》

대답은 선뜻 드렸지만 은주는 어쩔바를 몰라 잠시 머리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이 막 다듬이질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서투른 선전을 친히 들어보자고 하실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은주였습니다.

은주는 몸가짐을 바로잡고있는 옥희와 성실이의 무릎을 살그머니 건드렸습니다. 옥희와 성실이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선전문의 허두를 뗐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여러분！…》

은주가 챙챙히 울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전력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력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강이 많고 물이 많고 석탄이 많은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에 큰 수력발전소들과 화력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성실이의 여무진 목소리가 침착하게 선전문의 다음부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어나는 우리의 공장, 발전하는 우리의 농업은 날에날마다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전진하는 공업과 농업, 인민생활을 위해 더 많은 전기가 요구되는 이 시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은주와 옥희가 합창으로 성실이의 그 물음에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도 절약, 둘째도 절약, 셋째도 절약입니다！》

두 소녀의 되알진 웨침소리는 달리는 차안에서 멀리 퍼졌습니다.

《잘하는군, 잘해. 제법이거든！ 그래 선전문은 누가 썼지？》

《은주가 썼습니다. 선생님두 도와주시구…》

옥희가 은주를 돌아보며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은주가？！ 아주 잘 썼다. 당의 사상을 잘 담았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내용을 더 보태면 어떻겠니.…》

아이들은 눈을 깜빡거리며 아버지대원수님의 말씀에 귀를 강구었습니다. 은주는 어느새 원주필을 꺼내들고 수첩장에 아버지대원수님의 말씀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콜불이나 등잔불을 켜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귀중한 전기를 망탕 쓰고있다. 이런 버릇을 제때에 뿌

리뽑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니? 큰 발전소들을 아무리 많이 건설하여도 쓸데가 없단 말이다. 그렇기때문에 당에서는 생활이 넉넉해질수록 사람들에게 살림살이를 더 알뜰히 하라고 호소하는거란다. 당이 제일 가슴아파하는 문제가 바로 이 랑비현상이다.》

은주는《당이 제일 가슴아파하는 문제》라는 대목에 굵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지난날의 처지》와 《랑비현상》이라는 문구아래에도 진한 점선을 받치였습니다. 높뛰는 숨결때문에 마디마디 끊기는듯 한 목소리가 은주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왔습니다.

《대원수님, 선전문도 다시 쓰고 선전활동도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대원수님, 더 잘하겠습니다!》

옥희와 성실이도 은주의 말에 목청을 보태였습니다.

《그래 더 잘하거라. 궁전소조원들은 사회정치활동에서도 모범이 돼야 해.》

차는 잠간사이에 중성네거리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차가 광장곁을 지나면서부터 웬일인지 줄곧 왼켠만 내다보셨습니다.

은주는 아버지대원수님의 자애로운 표정이 점점 흐려지는것을 보았습니다.

장대재언덕은 짙은 어둠속에 잠겨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궁전의 유리창들은 깊은 잠을 자는듯 하였습니다.

언제나 정답게만 느껴지던 13층 탑이 멀리서 비쳐가는 한밤의 어슴푸레한 불빛을 받아 오늘은 어쩐지 류달리 우중충해보였습니다.

《꺼졌군!》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마음속의 서운함을 이 한마디에 담아 되뇌이시며 손가락으로 승용차의 간막이턱을 조용히 두드리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과 궁전건물을 엇바꿔 바라보던 옥희의 입에서 당돌한 목소리가 불쑥 튕겨나왔습니다.

《대원수님, 저희들은 궁전이 전기절약에서도 모범을 보이자고 결의했습니다.…》

옥희는 성실이가 옆구리를 쿡 찌르는 바람에 말끝을 맺지 못하고 흠칫 입을 다물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이윽고 궁전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차를 돌리시오!》

가벼운 발동소리와 함께 자동차의 눈부신 불빛이 장대재언덕에 서린 어둠을 두줄기로 갈라버리였습니다.

차가 정문곁에 가닿자 궁전선생님이 현관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오신것을 알게 된 선생님은 허리굽혀 인사를 드린 다음 《어버이수령님, 이 밤중에…》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잡으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온 장대재가 울리게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나가다가 궁전에 불이 꺼졌기에 웬일인가 해서 들렸습니다.…》

《수령님, 오늘은 쉬는 날이고 또…》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크게 웃으시였습니다.

《궁전일군들과 어린이들의 그 높은 절약정신에는 나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다른데도 아닌 왕들의 궁전에 전기를 끄면 되겠습니까! 나는 지나가다가 불꺼진 궁전을 보고 너무 섭섭해서 차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밤 저앞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 없는 장대재언덕을 보고 얼마나 서운해하였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전기절약을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밝게밝게 불을 켜야 합니다!》

은주는 아버지대원수님의 말씀을 받고 자책어린 마음으로 궁전을 향해 들어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무리들이 단꺼번에 장대재언덕에 쏟아져내린듯 갑자기 궁전건물이 대낮처럼 환히 드러났습니다.

잠을 깬 창유리들은 밤거리를 향해 밝은 웃음을 지어보냈습니다. 지붕우의 장식등불도 춤추는 눈송이들을 보고 반짝반짝 웃어줍니다.

《야!》

은주는 두 동무의 손을 잡아끌며 자동차밖으로 막 뛰여나갔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전망탑의 불빛과 눈부신 장식등불을 바라보시며 궁전뜨락을 오래도록 거니시였습니다.

은주와 옥희, 성실이는 불빛이 어리여 더더욱 환해보이는 아버지대원수님의 모습을 오래도록 우러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과 함께 나온 궁전일군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저것 보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정치위원회를 하다가도 휴식시간이 되면 당중앙위원회의 창문을 열어놓고 저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곤을 풀군 합니다.

그러면 한 십년이나 이십년쯤은 더 젊어지는것 같습니다. 찬찬히 보느라면 수많은 저 전등들이 그저 전등같지 않구 아이들의 얼굴처럼 돼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구 거기서 비치는 불빛은 아이들의 얼굴에 흐르는 웃음처럼 보이구…》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불빛은 정말 아이들의 얼굴처럼 행복에 겨워 노상 방글거리는것 같았습니다.

(정답고 다정한 동무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것 같구나. 성실이두 옥희두 영옥이두… 그리구 가야금을 잘 타는 숙천의 향숙이, 야영의 날 송도원모래터에서 사귄 창성의 꽃분이 그리구 궁전에 왔던 총련학교 별순이두…)

참으로 축복받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궁전의 지붕과 창가에 서서 온 세상을 향해 웃고있는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의 뜨거운 음성이 또다시 장대재언덕을 울리며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은주의 가슴을 흔들어주었습니다.

《…강선의 용해공들은 이밤도 저 불빛을 바라보며 쇠물을 뽑고있습니다.

저 불빛을 그리면서 남조선의 혁명가들이 항쟁의 밤길을 걸어갑니다. 외국의 벗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불빛만 보면 혁명하고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지구우의 모든 혁명가들에게 혁명은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궁전의 불빛! 조선의 미래가 빛나고있는 저 불빛을 우리 영원히… 영원히… 더 밝게 켜줍시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세 아이를 한품에 꽉 끌어안으시였습니다. 은주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어깨를 들먹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웃음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아껴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 우리는 온 세상에 빛나는 장대재의 밝은 불빛, 조선의 밝은 불빛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의 영원한 기쁨, 아버지대원수님의 영원한 웃음이 되겠습니다!)

복받은 궁전에 날아드는 하늘의 꽃보라인양 불빛이 휘황한 장대재언덕에 눈은 쉬임없이 하늘하늘 내려앉았습니다.

(김 정)

△ 형 상

형상이란 문학작품에 그려진 생동한 인간생활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말하여 작품에서 인물의 생김새와 말투, 행동, 마음속의 생각, 생활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한폭의 그림처럼 생동하게 그려낸것을 말합니다.

소설 《영원한 불빛》을 읽으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눈내리는 깊은 밤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거룩하신 모습과 은주네를 따뜻이 사랑해주시는 모습 그리고 장대재언덕에 높이 솟은 학생소년궁전의 창문들에 불이 꺼진것을 보시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모든 곳에서 전기절약을 해야 하지만 왕들이 있는 궁전에만은 절대로 불이 꺼져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자애로운 모습이 생동하게 안겨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작품에서 인간생활을 눈에 보는것처럼 진실하게 형상하였기때문입니다.

읽기교재

38. 클 락 새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는 그 어디를 가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있다.

숲이 무성하고 옥같은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넘치는 푸른 산마다에는 고운 새들이 살기 좋은 금수강산을 노래하고 리로운 짐승들이 춤추며 뛰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생활에도 리로우며 보기에도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이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의 리로운 새들가운데는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에만 살고있는 클락새도 있다.

클락새는 밤나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나무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매우 리롭고 희귀한 새이다.

우리 나라에서 클락새가 처음으로 알려진것은 1879년이다. 클락새는 원래 개성이남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남해에 있는 일본의 쯔시마섬에까지 퍼져있었다.

그러던것이 쯔시마에서는 클락새를 희귀한 새라고 하여 마구 잡아 표본을 만들거나 약재로 썼기때문에 1920년쯤에 완전히 없어졌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도 일제놈들이 클락새를 닥치는대로 잡고 산림을 마구 베여버림으로써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조국이 해방된 뒤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곳곳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산림을 마구 베여 1950년대부터 클락새를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클락새들은 보금자리를 찾아 공화국북반부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해방직후부터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리로운 산짐승과 새들을 적극 보호하고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취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희귀한 새인 클락새를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사업을 전인민적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클락새가 나타나는 모든 곳을 보호구로 정하고 보호함으로써 개성지방으로부터 황해북도의 멸악산일대의 신계지방에까지 널리 퍼졌으며 그 자원이 많이 늘어났다.

클락새는 아침과 저녁에《클락클락》하는 특이한 소리로 운다. 또한《큰악큰악》하면서 울기때문에 옛날에는《큰악새》라고도 불렀다.

딱따구리과에 속하는 클락새는 우리 나라 딱따구리종류가운데서 제일 큰 종이다.

생김새는 딱따구리와 비슷하지만 암컷과 수컷이 다 뒤가슴으로부터 옆구리, 배, 아래우꼬리더부치가 흰색이여서 잘 갈라볼수 있다.

클락새의 부리는 길고 뾰족하며 매우 굳세다. 발가락은 4개인데 그중 2개는 뒤로 놓이고 꼬리깃은 매우 탄탄하여 나무줄기로 오를 때에는 받침대의 역할을 한다.

수컷의 대가리꼭대기에는 불붙는듯 윤기가 도는 붉은 색갈의 깃이 있다.

클락새는 해가 채 지기 전에 둥지에 찾아들며 아침에는 날이 밝자 둥지에서 나간다. 4～5월에 큰 나무에다 구멍을 뚫고 그속에서 한배에 3～4개의 흰 알을 낳는다. 알은 22일동안 품으면 까난다.

엄지들은 부지런히 산림속을 날아다니면서 주로 구새먹은 나무와 말라죽은 나무속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벌레들을 먹이주머니에 잡아넣었다가 새끼에게 토해서 먹인다. 새끼치는 철에 엄지들은 하루에 한마리가 보통 15번이상 드물게는 20번이상 둥지에 오가면서 새끼에게 많은 벌레를 날라다 먹인다.

클락새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의 밤나무, 참나무, 백양나무, 느티나무숲이 우거진 산기슭에 살면서 벌레를 잡아먹는다. 나무줄기를 오르내리면서 껍질에 붙어있는것, 짬에 붙어있는것, 나무속깊이까지 들어간 벌레들을 잡아먹는데 깊이 들어간 벌레는 부리로 구멍을 뚫고 거스러미가 있는 긴 혀로 찍어내여 먹는다.

클락새는 주로 돌드레의 새끼를 잡아먹으며 그밖의 나무좀류와 바구미류 등도 잡아먹는다.

이처럼 클락새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리로운 새이다.

우리 나라의 자랑인 클락새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번영하는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풍요한 강산으로 만드는 귀중한 동물자원으로서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읽기교재

39. 사회주의 지키세

검은 구름 몰아치고 유혹의 바람 불어도
향도성 따라서 사회주의 나간다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

지키며는 승리요 버리면 죽음일세
향도성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세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향도성 받들어 온 세상에 빛내세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일세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

(신운호)

읽기교재

40. 여우와 황새

토끼들이 파놓은 굴에서 꾀많은 여우가 살고있었습니다.

여우는 어렸을 때부터 토끼의 집이 탐났는데 차츰 크자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토끼들을 모조리 잡아먹고는 그 집까지 차지하였던것입니다.

여우는 이 집을 잘 꾸려놓고 갖가지 물건들로 장식하였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은 모두 훔쳐온거지요.

그리고는 거기서 혼자 살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사냥을 하였습니다.

어느 이른아침 여우가 입에 죽은 토끼를 물고 돌아오다가 커다란 흰 새 한마리가 대가치처럼 긴 다리로 강가의 갈대사이에 서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새는 여우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서로 아는 처지였지요. 그러나 여우는 그를 보자 깔깔 웃었습니다. 토끼를 입에 문채로 웃었기에 다행히 그 큰 새가 듣지는 못하였지요. 그 긴 다리와 그보다도 더 긴 모가지를 보자 여우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던것입니다.

교활한 여우는 이 멍텅구리처럼 뵈는 새를 한번 골려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토끼를 조심스러이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어떠시오. 황새님！ 사냥은 많이 하셨소？》 하고 물었습니다.

《네，많이 했수다！》 황새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개구리들도 이제는 약아져서 잡아내기가 퍽 힘들군요.》

황새는 토끼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꽤 먹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초대를 하겠으니 저녁을 먹으러 오세요.》 여우가 넌지시 말하였습니다.

《맛있는 토끼료리를 만들어드리지요.》

황새는 이 초대를 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윽고 여우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여우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여우는 자꾸 속으로 웃었습니다. 몸을 옹크리고 낮잠을 자면서까지 웃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황새가 여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키 큰 황새가 여우굴속으로 들어올수 없어 주인은 바깔풀밭에다 저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우는 상을 놓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후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 큰 료리접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상우에 놓고 황새에게 권하였습니다.

황새는 긴 부리를 국접시에다 갖다대고 먹어보려고 애썼으나 이따금 걸리는 부스레기밖에는 아무것도 입으로 들어오는것이 없었

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우는 황새에게 연방 권하면서 몇접시를 훌떡 먹어치웠답니다.

그리고보니 식사는 끝났지만 황새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황새는 본래 자존심이 강한 새인지라 모든것을 꾹 참았답니다.

《정말 훌륭한 토끼료리군요！》 하고 황새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뭐 별로 성의에 보답할것은 없지만 래일은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듭시다. 개구리전골을 맛보여드릴테니… 아마 개구리전골도 괜찮을겝니다.》

여우도 개구리료리를 꽤 좋아하는편이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튿날 저녁 여우는 저고리솔질도 하고 수염도 다듬고는 황새에게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주인은 벌써 갈숲옆에 나와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우！》 황새는 풀숲으로 길을 안내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식사는 벌써 준비되여있습니다. 그런데 접시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그냥 한그릇에서 같이 나눕시다.》

황새는 발을 들어 료리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황새목만큼 긴 모가지가 달린 커다란 단지였지요. 그속에서는 어제 저녁 토끼곰국같은 구수한 냄새가 무럭무럭 났습니다.

《자, 드시지요!》 황새는 친절하게 권하였습니다.

《이건 맛있는 전골이랍니다!》

그리고는 긴 부리를 단지속으로 디밀어 큰 개구리를 한마리 물어내가지고는 여우가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는 앞에서 꿀꺽 삼켰습니다. 개구리를 물어낼 때마다 황새는 여우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멍하니 앉아 그 단지만을 쳐다보고있을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새는 개구리를 다 먹고나서야 비로소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여보게 여우, 자네는 내 목과 부리가 길다고 놀려주었지만 오늘 저녁은 나한테 속았네. 나는 자네의 조롱에 리자를 붙여 갚은 셈이야! 하하하…》

(다른 나라 작품)

〔속 담〕

○ 호박은 떡잎부터 좋아야 한다.
모든 일은 시작할 때부터 잘하여야 한다는 말.

○ 고기는 씹어야 맛을 안다.
무엇이나 실지로 해보아야 그 본질을 똑똑히 알수 있다는 말.

말하기교재

41. 통일의 문을 열자

동무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제에 의하여 나라가 허리를 끊기운채 둘로 갈라져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해전 어느날 림진강건너편 바위우에서 나이든 한 남자가 김을 매고 들어오는 우리 농장원들을 향해 애절히 소리치는것이였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림한리 말몰이군 돌쇠웨다. 통백골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잘 있나요？—》

그의 구슬픈 웨침소리는 긴 여운을 남기며 북쪽강변으로 메아리쳐왔습니다.

《통백골 말몰이군이 살아있다！》

이 소식은 삽시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안해와 아들딸들이 두주먹을 부르쥐고 강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에게 끌리여 남으로 나간 통백골 말몰이군！

그가 살아서 제 집식구들의 안부를 묻고있다니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허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강변을 순찰하던 미제승냥이놈들이 달려와 그를 총탁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차며 끌고갔습니다.

《여보！》

《아버지！》

안해와 자식들은 서로 애타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는 대답이 없고 그들의 피타는 웨침소리만 남으로 울려갈뿐이였습니다.

동무들! 그리운 혈육들인 이들이 어찌하여 한순간만이라도 만날수 없단 말입니까.

림진강물이 깊어서입니까, 아니면 강폭이 넓어서입니까.

팔을 들면 서로 마주잡을듯, 발을 들면 저편 강기슭에 건너설듯 한 지척의 남녘땅, 한조상의 피를 이어 대대로 화목하게 살아왔고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강건너마을이 오늘은 왜 이다지 멀고 아득하단 말입니까.

꽃구름 두둥실 강물에 실려 남으로 흘러가고 온갖 철새들도 북남 삼천리를 자유로이 오가건만 겨레들은 꿈속에서만 그리운 혈육들을 찾는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동무들! 군사분계선표말을 박을 때 떨어진 씨앗이 지금은 아름드리나무로 자랐고 철조망밑의 두줄기 철길은 삭고삭아서 흙으로 변해가고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대답해보십시오!

항일의 준엄한 나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가물거리는 밀영의 등잔불로 해방된 조국의 래일을 구상하시며 비쳐보시던 조선지도가 분렬된 조국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백두산천지의 맑은 물이 태백의 줄기를 흘러내려 한나산의 백록담으로 고인 삼천리금수강산이였습니다.

조국진군의 그날 항일의 녀전사가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그려본것도 바로 하나의 조국이였으며 전화의 나날 수많은 영웅전사들이 고귀한 청춘을 바친것도 다름아닌 하나의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는 조국은 미제에 의하여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어찌 민족분렬의 고통을 더 이상 참을수 있단 말입니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조국통일!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생전의 뜻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입니다.

조국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그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두리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조선인민모두가 하나로 굳게 뭉쳐 우리 손으로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통일의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앞길은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도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목숨으로 지키는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며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통일만세를 부를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합니다.

△ 말의 속도

말의 속도란 단위시간안에 발음되는 말소리흐름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말합니다.

말의 속도는 첫째로, 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에서 어떤 대목을 두드러지게 하거나 명확히 나타내야 할 때는 느린 속도로 발음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알고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빠른 속도로 발음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보다 느리게 발음합니다.

말의 속도는 둘째로, 듣는 대상과 말하는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늙은이나 어린이들에게 말할 때는 느리게 발음합니다.

활기를 띤 분위기속에서는 속도를 빨리 하며 조용한 분위기속에서는 느리게 발음합니다.

말의 속도는 셋째로, 말하는 사람의 감정정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존경하여 정중하게 말할 때는 속도를 늦추며 다급하고 조급할 때는 빨리 합니다.

42. 우리 마을

새털같은 가벼운 구름송이들은 하늘중천에서 둥둥 떠가고 해별은 온 누리에 금빛을 뿌려줍니다.

《아이 아파.》

돌에 채인 오른쪽엄지발가락이 시큰해왔습니다. 여느때같으면 짜증을 냈을 영미였지만 오늘만은 삐죽이 땅우에 얼굴을 내밀다만 돌을 왼발로 살짝 건드려보고는 해쭉 웃으며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콩당콩당 뛰여갑니다.

영미는 오늘 국어시간에 《우리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잘하여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미는 어서빨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리고싶었습니다.

눈앞에는 자기를 꼭 그러안고 수염이 검실검실한 두볼에 비비며 《우리 영미가 정말 용쿠나!》 하고 기뻐하실 아버지와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옴폭 패인 보조개가 저도모르게 생겨났습니다.

새움이 파릇파릇 갓 돋아나기 시작한 들판우에서 지종지종 노래를 부르는 종달새도 자기를 반겨주는것만 같았습니다.

기쁨과 흥분으로 하여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나풀나풀 뛰여가던 영미는 살림집앞에 꾸려진 놀이터앞에서 오뚝 서버리고말았습니다.

아니 글쎄 아침에 학교에 갈 때만 해도 아무 일 없던 애기꽃나무 한가지가 뚝 부러져있는것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유치원꼬마들이 미끄럼대를 타다가 부러뜨린 모양입니다.

(야! 참,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요일에두 쉬지 않고 심은 꽃나문데… 어떻게 할가? 그냥 갈가?…)

그것을 바라보느라니 영미는 은근히 조급해났습니다.

《일없어, 이제 관리원어머니가 오시겠는데 뭐.…》

이렇게 종알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자기를 부르는 꽃나무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오는듯싶었습니다.

《영미야, 우리를 버리고가지 말아줘 응? 아파 죽겠어.… 흑흑…》

그 울음소리는 영미의 발목을 잡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가?…)

영미는 한동안 망설이였습니다.

이때 그의 귀전에는 국어시간에 자기가 발표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참 좋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모두 부러워 합니다.… 나는 우리 마을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애기나무야, 내가 잘못했어!》

영미는 애기나무앞에 주저앉아 빨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속에서 수공가위를 꺼내 비닐주머니를 사각사각 잘랐습니다. 영미는 부러진 애기나무가지에 진흙을 바르고 그것으로 정성껏 싸매주었습니다.

《영미야, 정말 고마와!》

살랑대는 봄바람에 아지를 흔들며 애기꽃나무들이 속삭이는것 같았습니다. 영미는 이마며 코등에 내돋은 땀방울을 훔치며 마음다졌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더 잘 꾸려갈테야.)



읽기교재

43. 미 래

은미의 집은 항구도시의 교외에 자리잡고있었다. 시내로 들어가자면 이십리나 걸어야 하였다.

오늘 은미는 뻐스를 타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걸으면서 가을풍경을 눈여겨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때문이였다. 그는 그림첩을 가지고 시내의 사범대학을 찾아가는 길이였다.

안경을 낀 미술강좌장선생님의 얼굴이 벌써부터 눈앞에 얼른거리였다.

《잘 그렸구만. 먼저번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 이담에 정말 대단한 녀류화가가 되겠는걸.》

몸매 날씬한 녀류화가 리은미가 저앞으로 걸어간다. 훌륭하게 완성된 그림이 미술전람회장에 나붙는다. 사람들은 그앞에서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한다. 결코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는 꿈이라는것을 은미도 모르지 않았다.

한낮이 기울었으나 가을볕은 여전히 따가왔다. 길 왼쪽에서는 희디흰 모래불을 핥으며 바다물이 처절썩거리고 그에 질세라 길 오른편에서는 벼바다가 늠실거리였다. 한주일전만 해도 푸르더니 그사이에 벌써 금빛옷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곧 가을걷이가 시작될것이다. 그때 여기로 나와 가을풍경을 멋지게 그려두어야겠다고 은미는 걸으면서 속궁리를 했었다.

바로 그때였다.

승용차의 경쾌한 경적이 뒤쪽에서 가볍게 울려왔다. 속도를 늦추며 은미의 옆을 지나치던 승용차들이 뜻밖에도 모두 멎어서는것이였다.

맨 앞차의 문이 열리는것이 보였다.

《애야, 어서 이리 오너라.》

《경애하는 원수님!》

한순간 못박혀 섰던 은미는 쏜살같이 달려갔다.

《어딜 가느냐? 시내에 들어가는 길이냐?》

발갛게 상기된 은미의 볼을 어루만져주시며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원수님께서 물으시였다.

《예, 사범대학에 갑니다.》

은미의 목소리는 가볍게 떠듬거렸다.

《사범대학에？… 어서 타거라, 내 데려다주마.》

은미는 온몸이 갑자기 하늘로 둥—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가볍게 차체를 떨며 승용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길량옆에 보초병처럼 주런이 늘어선 방울나무들이 반기여 춤추듯 시창앞으로 다가들다가는 아쉬운 마음으로 잎새를 흔들어대며 옆으로옆으로 미끄러져가군 하였다.

바다도 무척 부러운듯싶었다. 자기도 함께 가자고 높이 더 높이 파도를 일으켜 따라오다가는 기슭에 막혀 더 어쩌지 못하고 철썩 처절썩 목메인 소리를 지른다.

《좀 천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르시자 승용차는 인츰 속도를 늦추었다.

《이름이 뭐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으시자 은미는 자기 이름을 대드렸다.

《리은미라… 이름이 좋구나. 몇살이지？》

《아홉살입니다.》

《아홉살이면… 4학년이겠구나.》

《예, 소학교 4학년입니다.》

《그럴테지, 그런데 사범대학엔 무슨 일로 가느냐？》

은미는 미술강좌장선생님한테 개별지도 받으러 간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다.

《그래？！ 거 대단한 녀류화가를 만났는걸. 어디 네 그림을 좀 볼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은미의 무릎우에 놓인 그림첩을 가리키시며 물으시였다.

은미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림첩을 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장의 연필화들과 함께 《오늘도 만선！》이라는 조선화를 보아주시였다.

《괜찮아！ 착상이 좋구 구도도 그만하면 잘 잡혔어.… 이 고기배들과 갈매기들을 한두번의 붓질로 간명하게 슬쩍 처리한건 정말 대단해.… 이런 재간을 어디서 배웠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기특하시여 은미의 어깨를 꼭 껴안아주시였다.

《할아버지한테서 배웠습니다. 우리 할아버진 화가입니다.》

《할아버지가 화가란 말이지? 할아버지 이름이 뭐지?》

《리성준입니다.》

《리성준이라구?》

《예, 우리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알구말구, 이름있는 화가인데 왜 모르겠니. 〈원한의 장벽〉, 〈호박풍년〉, 〈포구가 보인다〉 참 좋은 그림들을 많이 내놓았지. … 네가 단붓질로 처리한 이 수평선이랑 고기배랑 갈매기들을 그린 방법은 조선화의 전통적인 화법인 몰골기법이라는것이다. 너의 할아버진 이 화법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공을 세웠다. 네가 벌써 할아버지의 좋은 특기를 이만치 배워낸건 참 장한 일이다.》

은미는 어리광이라도 부리듯 갑자기 시무룩해졌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진… 저보구 크게 늘지 않는다구 욕했습니다.》

《허허… 너의 할아버지가 지내 요구성이 높아서 그러신게 아닐가?》

은미는 자책어린 어조로 조용히 말씀드렸다.

이곳 해안도시에서 화가로 일하시던 할아버지는 은미가 4살 되던 해부터 그에게 그림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은미의 그림은 소학교 2학년 때에 벌써 전국소학교부문 미술전람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석달후 할아버지가 미술대학 강좌장으로 평양에 올라가시게 되였다. 할아버지는 떠나시면서 그림공부를 잘하라고 신신당부하시였다. 그후 은미는 처음 한동안 미술공부를 괜찮게 했으나 차츰 마음의 탕개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수산사업소에 그림을 그리러 왔던 할아버지가 은미의 그림을 보고 말씀하시였다.

《그럴줄 알았다. 허참, 이거 야단인걸. 네 그림재간은 별루 늘지 못했구나. 그저 고만해있으니 이게 야단 아니냐?》

할아버지는 여간만 섭섭해하지 않으시였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은미는 마음을 다잡고 미술공부를 착실히 해나갔다.

아버지와 함께 사범대학 미술강좌에도 찾아가게 되였고 오늘은 두번째로 이렇게 강좌장선생님을 찾아가게 된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은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계시였다.

《네 그림재간이 더 늘지 않는다니 그거 참 야단이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걱정어린 안색으로 은미를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이젠 일없습니다. 담임선생님한테두 매일같이 봐달래구 대학 강좌장선생님한테두 더 자주 찾아가 배우겠습니다.》

《허—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 그런데 이십리나 되는 길을 다니자면 힘들텐데… 그러자면 시간도 많이 떼울게구.…》

은미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걱정어린 음성으로 다정하게 물으시였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냐?》

《유원지관리소에서 원예사로 일합니다.》

《그래? 거참 마침이구나. 그러찮아두 거기로 가던 길인데.…자, 빨리! 속도를 좀 내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한 유원지관리소는 감격으로 뒤설레였다. 은미의 아버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손목을 잡고계신 애가 자기 딸애라는것을 알아보고는 그만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관리소 종업원들을 둘러보시며 누가 은미의 아버지인가고 물으시였다.

《접니다.》

눈이 어글어글한 은미의 아버지가 한걸음 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은미 아버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은미의 그림재간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평양으로 소환되여간 뒤부터 발전속도가 떠졌다고 합니다. 이 애의 할아버지는 이름난 조선화 화가인데 몰골기법을 발전시켜 좋은 그림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 좋은 특기가 이 애한테서 엿보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심어준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십리나 되는 사범대학 미술강좌를 찾아가긴 하지만…》

너무도 뜻밖의 말씀인지라 모두들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다니던 한 일군이 은미네 집을 사범대학 가까이로 옮기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을 고르시다가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은미가 아무리 사범대학 미술강좌에 찾아가 공부한다 해도

할아버지한테서 배운 좋은 특기를 잘 살려줄수 없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은미는 경애하는 원수님한테로 바싹 다가가 속삭이듯 조용히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 제가 평양에 가문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루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은미의 그 대답이 못내 기특하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시금 그의 어깨를 꼭 그러안아주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걱정어린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였다.

《앞으로 오래동안 부모들과 헤여져있으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싶겠니. 방학때면 집으로 올수는 있겠지.… 그러느라면 그림공부를 많이 손해볼게 아니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원들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며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재능있는 녀류화가를 하나 잃는다는게 얼마나 큰 손실로 되는건지 생각들 해봤습니까? 은미네 온 가족을 평양에 모두 올려보냅시다. 어떻습니까? 은미 아버지 생각은?》

《경애하는 원수님!》

은미의 아버지는 목이 콱 메여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었다.

아직은 아홉살밖에 안되는 나어린 한 소녀의 작은 소질에서 조국의 큰 미래를 내다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떠나실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은미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부디 성공해라. 화가가 된 다음 우리 다시 만나자!》

《꼭 훌륭한 화가가 되겠습니다!》

하늘같은 믿음에 넘쳐나는 격정으로 하여 은미는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점점 속력을 내기 시작하였다.

해빛 밝게 뿌리는 곧게 뻗은 큰길을 따라 은미의 마음도 희망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끝없이 끝없이 나래쳐가고있었다.

(리준길)

〔속 담〕

○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하여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말.

○ 길동무가 좋으면 먼길도 가깝다.
무슨 일을 하는데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얻는것이 중요하다는 말.

국 어(중학교 제1학년용)

6 판

집 필 전장길, 교수 박사 문재홍, 황철명, 부교수 리광섭, 홍기천	심 사 심의위원회
	콤퓨터편성 손수옥
편 집 손수옥	그 림 박찬규, 홍성철
장 정 류명심	교 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4판 발행 주체93(2004)년 11월 12일
6판 인쇄 주체100(2011)년 3월 21일	5판 발행 주체100(2011)년 3월 31일

교－11-보-2 값 10원